

2022-CR-03

작은연구 좋은서울 22-02

신촌 생활권 청년 거주자의 생활권 인식에 관한 연구

이슬



**신촌 생활권 청년 거주자의
생활권 인식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이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pebosolee@yonsei.ac.kr

연구진

김태건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sahy10@hanmail.net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서론	1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_연구의 범위	4
3_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02 생활권계획과 근린 인식연구	12
1_생활권계획	12
2_근린생활권 인식연구	18
3_연구의 차별성	22
03 생활권 인식 기초분석 결과	23
1_신촌생활권 개요	23
2_설문 구성 및 응답자 특성	27
3_생활권 범위	30
4_생활권 환경 만족도	40
5_정책 인지 및 중요도	50
6_관계 및 커뮤니티	56
7_소결	61
04 생활권 환경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63
1_분석모형	63
2_분석 결과	67
3_소결	72

05 결론 및 정책제언	74
1_연구 요약	74
2_정책제언	76
참고문헌	80
부록	85



표 목차

[표 1-1] 생활권별 청년인구 비율 순위(상위 10위)	5
[표 1-2] 신촌생활권 지역발전구상	6
[표 3-1] 신촌생활권 상위계획 현황	24
[표 3-2]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9
[표 3-3] 인식적 생활권 넓이	31
[표 3-4] 인식적 생활권의 범위	32
[표 3-5]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	36
[표 3-6] 직주 일치 여부	39
[표 3-7] 성별 직주 일치 여부 교차분석 결과	39
[표 3-8] 생활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40
[표 3-9] 생활권 내 이용시설 만족도	41
[표 3-10] 생활권 환경 만족도	43
[표 3-11] 생활권 환경 필요 요소 군집화	48
[표 3-12] 생활권 환경 필요 요소	49
[표 3-13] 정책 인지 여부	50
[표 3-14] 연령별 정책 인지 여부 교차분석 결과	50
[표 3-15] 지역발전구상 정책 중요도	51
[표 3-16] 공간관리지침 정책 중요도	52
[표 3-17] 생활권계획 정책 수요 군집화	54
[표 3-18] 생활권계획 정책 수요	54
[표 3-19] 거주지별 생활권계획 정책 수요	55

[표 3-20] 정책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	55
[표 3-21] 생활권 내 이웃과의 관계	56
[표 3-22] 생활권 내 이웃 교류 용이성	57
[표 3-23] 생활권 내 이웃 교류 용이성 사유 군집화	58
[표 3-24] 생활권 소속감	59
[표 4-1] 생활권 환경의 부문별 만족도 측정변수	64
[표 4-2] 실증모형의 변수 구성	65
[표 4-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8
[표 4-4] 탐색적 요인분석 선행연구	69
[표 4-5] 기초통계 분석	70
[표 4-6]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71
[표 4-7] 생활권 내 이용시설별 만족도 비교	72
[표 부록-1] 설문 항목 및 측정 방법	85

그림 목차

[그림 1-1] 신촌생활권 범위	4
[그림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그림 1-3] 교차영역 분석 방법 도식화	9
[그림 2-1] 보행 일상권 개념도	14
[그림 2-2] 생활권계획의 위상	15
[그림 2-3] 권역생활권 구분	16
[그림 2-4] 지역생활권 구분	16
[그림 2-5] 생활권계획 체계	17
[그림 3-1] 신촌생활권 개요	23
[그림 3-2] 신촌생활권 지역발전구상도	26
[그림 3-3] 신촌생활권 공간관리지침도	26
[그림 3-4] 전체 응답자의 생활권 인식지도	31
[그림 3-5] 성별 인식적 생활권 범위	32
[그림 3-6] 성별 생활권 인식지도(남성)	33
[그림 3-7] 성별 생활권 인식지도(여성)	33
[그림 3-8] 연령별 생활권 인식지도(19~24세)	33
[그림 3-9] 연령별 생활권 인식지도(25~29세)	33
[그림 3-10] 연령별 생활권 인식지도(30~34세)	33
[그림 3-11] 연령별 인식적 생활권 범위	34
[그림 3-12] 거주지별 k-means clustering 결과 시각화	35
[그림 3-13] 거주지별 인식적 생활권 범위	36
[그림 3-14]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	37
[그림 3-15] 성별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1순위)	37

[그림 3-16] 연령별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3순위)	38
[그림 3-17] 거주지별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3순위)	38
[그림 3-18] 성별 생활권 내 이용시설 만족도	41
[그림 3-19] 연령별 생활권 내 이용시설 만족도	42
[그림 3-20] 거주지별 생활권 내 이용시설 만족도	42
[그림 3-21] 성별 생활권 환경 만족도	44
[그림 3-22] 연령별 생활권 환경 만족도	44
[그림 3-23] 거주지별 생활권 환경 만족도	45
[그림 3-24] 생활권 환경 중요 요소	46
[그림 3-25] 성별 생활권 환경 중요 요소(1순위)	46
[그림 3-26] 연령별 생활권 환경 중요 요소(1순위, 3순위)	47
[그림 3-27] 거주지별 생활권 환경 중요 요소(3순위)	47
[그림 3-28] 성별 생활권 내 이웃과의 관계	56
[그림 3-29] 연령별 생활권 내 이웃과의 관계	57
[그림 3-30] 성별 생활권 소속감	59
[그림 3-31] 연령별 생활권 소속감	60
[그림 3-32] 거주지별 생활권 소속감	60
[그림 5-1] 신촌생활권계획 관련 현안 및 정책 대응	76
[그림 5-2] 연세대 서측 주거지 내 여성안심 귀갓길	77
[그림 5-3] 연세대 자치순찰대	77
[그림 5-4] 대학 신입생 교육자료 내 주거 정보(한양대학교)	78

01. 서론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도시 생활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비대면 활동 강화와 통행 감소로 오프라인 생활 환경이 제한되면서 주거지 중심 근린생활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20년 이후 서울 도시공간 변화 양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원격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주거 공간의 다기능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지역 단위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근린생활권의 쾌적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윤서연 외, 2020).

이와 같은 변화는 2030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당근마켓'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이자 일상생활의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 커뮤니티 장으로 2030 세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청년 세대의 라이프 트렌드 이슈 중 하나인 '느슨한 연대(weak ties)'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인기가 있다. 또한, 역세권 중심의 전통적 거주지 선택 기준은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다양한 시설이 있는 '슬세권'이나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점이 많이 뜨는 '배세권', 공원이 근처에 있는 '팍(park)세권'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이웃, 공동체와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낯선 타인에 대한 경계로 관계 형성에 있어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박상아 외, 2021). 하지만 생활권 내 공동체에 호의적이며,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령 계층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청년 세대에게 근린생활권은 계획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연결 및 공동체 활동과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 정책 구상을 위해 2018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 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생활권계획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상향식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생활권에 대한 개념이 정책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가 오래지 않았으며, 2040 서울플랜 발표에 따른 2030 서울 생활권계획 재정비를 위한 방향성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양재섭 외, 2022). 따라서 생활권계획의 주민참여 기반 계획 수립의 성격을 유지하되 대표성을 띤 다양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정량적인 근거 자료 축적이 요구된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 도래에 대응하는 공간 정책과 생활권계획 의사 결정에 이바지하는 다각적 차원의 의견 수렴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기존 선행연구에서 근린생활권 관련 연구는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황희돈 외, 2008; 박승훈, 2010; 성현곤, 2011; 이경환 외, 2008; 이경환 외, 2014; 고은정, 2018) 진행되어 근린의 공간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다. 특히 인식적 근린생활권 관련 연구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사회적 배제 측면에서 다른 계층과 차별점이 존재하는 노인 계층을 위주로 이루어 졌다(김동배 외, 2013; 김용진 외, 2012; 김동하, 2016; 박효숙 외, 2017). 또한 청년실태조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등 기존의 청년 대상 조사는 청년들의 경제적 현황과 자립에 목적을 둔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인식적 공간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책 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의 목적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년 세대의 생활권 인식 실태를 조사하여 세부 계층별 생활권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생활권 환경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지역생활권 중 신촌생활권을 대상으로 선정,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신촌 생활권 거주 청년의 생활권 인식을 양적, 질적으로 측정하여 인식적 생활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신촌생활권이라는 계획적 생활권의 범위와는 별개로 신촌생활권 내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 인식하는 생활권의 개념을 공간적 차원으로 수치화하였다. 더불어 생활권 환경 만족도와 생활권계획 인지 및 중요도, 생활권 내 관계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설문 문항 설계를 통해 신촌생활권 거주 청년의 생활권에 대한 태도, 경험, 의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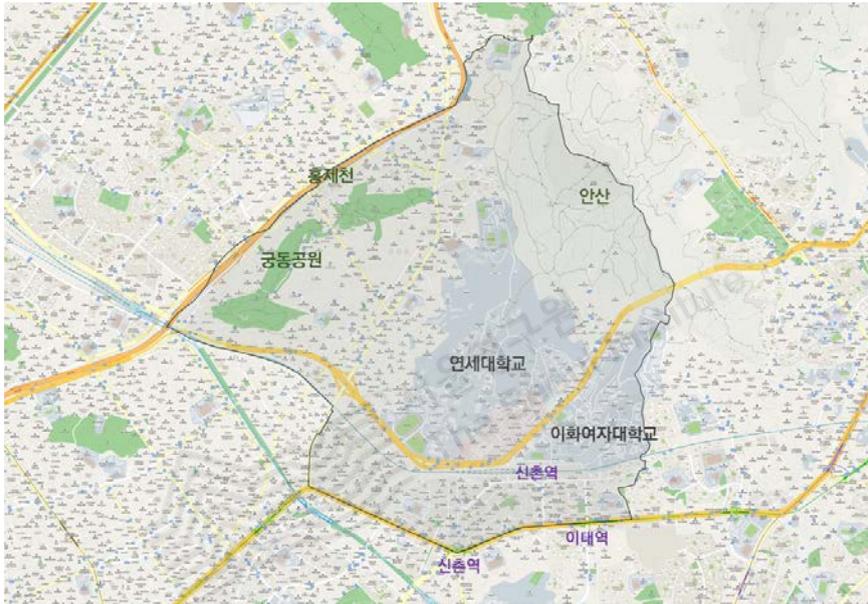
둘째, 청년 계층을 세분하고, 그에 맞는 정책 도출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세에서 34세 범위의 청년 세대 내에서도 성, 연령, 거주지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일 수 있어 다각적 차원에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과 연령은 가장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구분이며, 공간적 함의를 담고 있는 연구의 성격을 반영하여 거주지에 따른 구분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별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셋째, 생활권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청년 거주자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활권 인식 중 생활권 환경 만족도는 거주자가 현재 생활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함께 이동성, 공공성, 편의성, 관계성, 물리적 인프라, 환경성, 안전성 등 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 문항을 다수 구성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문별 만족도와 개인특성, 주거특성을 포함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생활권계획의 방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대안 구상의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들의 인식적 생활권을 살펴보고, 생활권계획 정책의 중요도와 수요를 제시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대응과 2040 서울플랜 발표에 따른 2030 서울 생활권계획의 재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들의 인식적 공간을 측정하고, 생활권 단위의 만족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_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생활권 인식과 생활권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116개 생활권 중 청년 중심의 생활권 선정을 위해 ① 청년인구 비율, ② 중심지와 주거지가 공존하는 생활권, ③ 생활권계획 내 청년 대상 계획의 존재 여부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신촌생활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1] 신촌생활권 범위

1) 높은 청년인구 비율

신촌생활권은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생활권이다. 신촌생활권의 총인구는 2021년 기준 54,728명이고, 그중 청년인구는 20,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8.0%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생활권의 순위를 정렬하였을 때 신촌생활권은 상위 4위로 나타나 청년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생활권에 해당한다. 특히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입지로 생활권 내 대학생 인구는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높은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1인가구 비율(54.7%) 또한 서울시 1인가구 비율(36.1%)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생활권별 청년인구 비율 순위(상위 10위)

순위	권역생활권	자치구	지역생활권	청년인구 비율
1	서남권	금천구	가산	44.3%
2	강북권	광진구	화양능동	43.3%
3	서남권	관악구	신림	40.1%
4	서북권	서대문구	신촌	38.0%
5	서남권	관악구	낙성대	35.2%
6	강북권	성동구	마장용답	32.6%
7	서북권	마포구	합정·서교	32.3%
8	서남권	관악구	봉천	32.0%
9	서남권	영등포구	당산	31.2%
10	도심권	종로구	혜화·이화	30.3%

2) 중심지와 주거지가 공존하는 생활권 구성

신촌생활권은 중심지와 주거지가 공존하고 있어 통근, 통학, 쇼핑, 여가 등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생활권이다. 먼저, 신촌생활권 직주균형지수¹⁾는 136.7%로 서울시(108.6%)보다 높아 중심지적 성격을 보인다. 5년간 사업체 증가율(14.2%) 및 종사자 증가율(12.9%) 또한 서울시(8.6%, 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도지역 현황에 따르면 신촌생활권의 경우 주거지역이 94.5%로 서울시(51.6%), 서대문구(87.3%)와 비교하였을 때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민 주택가와 고급 주택가, 대학 인근 자취촌이 병존하는 주거지 형태를 보인다.

3) 생활권계획 내 청년 대상 계획 존재

신촌생활권은 생활권계획 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생활권이다. 신촌생활권의 지역발전구상은 다음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신촌생활권 계획에는 청년 세대를 위한 별도의 목표가 2개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생활권과는 차이가 있다. 목표 1(대학과 함께하는 신촌 활성화)과 목표 3(청년인구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강화)에는 전략 1(이대·신촌역 청년창업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3(대학과 연계한 문화산업 기반조성), 전략 6(청년인구를 위한 주거 및 일자리 지원)이 청년 세대를 위한 실현 전략으로 제시되어

1) 직주균형지수는 한 지역 내 주거지에 대한 직장의 비율을 의미하며, 본 자료에서는 가구 수 대비 종사자 수로 산출(서울시, 2018)

있다. 특히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과 청년인구의 주거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접적인 청년 관련 정책은 아니더라도 안산 일대 주요 생활가로 및 경사지의 골목길 가로환경 정비와 연세대 서측 저층주거지 생활방법 안전 대책 수립 등 대학가 인근 주거지역 관리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표 1-2] 신촌생활권 지역발전구상

목표	전략	세부 내용
목표 1. 대학과 함께하는 신촌 활성화	전략 1. 이대-신촌역 청년창업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지원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신촌역-이대역 중심가로 차 없는 거리 확대 운영 및 이면가로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화자원 육성
	전략 2. 연희가로 지역문화 자원 특성 강화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상권활성화 유도
		연희대로 주변지역과 서부선(경전철) 연희초교역(신설 예정)을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계획적 관리
	전략 3. 대학과 연계한 문화산업 기반조성	특화거리 행정지원으로 문화특성 강화 및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대학의 문화와 개성이 살아있는 관광루트 및 청년문화거리 조성		
목표 2. 연희로 일대 지역 특성에 맞는 저층 주거지 관리	전략 4. 저층 주거지 기반시설 정비·개량 및 공급	대학자산을 주민들과 공유
		홍제천로 주변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개량 공급 및 공급방안 마련
		안산 일대 주요 생활가로 및 경사지의 골목길 가로환경 정비
	전략 5. 정비구역 및 해제지역 계획적 관리	연세대 서측 저층주거지 생활방법 안전 대책 수립
		경전철~연희초교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 정비
		홍제천 주변 정비구역과 해제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및 관리
목표 3. 청년인구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강화	전략 6. 청년인구를 위한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전망 구축
	전략 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홍보 및 지원	다양한 장학금 제도 홍보 및 지원방안 마련
목표 4.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여가 기회확대 및 특성강화	전략 8. 공공시설 을 활용한 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기회 확대	국내 기업과 우수한 인재를 연결하는 취업박람회 등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
		자연사박물관~청소년수련시설의 연계방안 마련
		자연사박물관~청소년수련시설~안산 자락길을 청소년 위주의 가족단위 체험루트 개발
		지역축제의 적극적 지원과 특성거점별 신규 문화행사 발굴

3_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생활권계획 관련 문헌과 근린 인식연구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3장과 4장은 연구 결과 부분으로 3장에서는 신촌지역 청년 거주자의 생활권 인식조사와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4장에서는 생활권 환경 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요약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장 생활권계획과 근린 인식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계획 : 생활권계획, 2030 서울 생활권계획 문헌 및 사례 검토 • 근린생활권 인식 연구 : 근린생활권 인식, 근린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장 생활권 인식 기초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 공간분석 QGIS의 Geometry(둘레, 면적) 형태복잡도 산출 교차영역(intersection) 분석 k-means clustering • 기초통계 분석 독립표본 t-검정 분산분석 
4장 생활권 환경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모형 • 분석결과 • 탐색적 요인분석 생활권 환경 부문별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고유값 1 이상인 요인 추출, Varimax 직각회전 방법 활용 • 순서형 로짓분석 종속변수: 전반적 생활권 만족도 독립변수 : 부문별 만족도 요인, 개인특성(성별, 연령, 월평균 소득, 이웃관계, 형태복잡도), 주거특성(월세, 1인 가구, 거주기간, 직주근접)
5장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요약 • 정책제언

[그림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연구의 방법

(1) 문헌 및 사례 검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최근 생활권계획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시간 도시계획과 그 대표 사례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국내 사례의 하나로 2040 서울플랜에 따른 보행일상권과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근린생활권 인식에 관한 연구 검토를 통해 전통적 근린주구 이론에 따른 근린의 개념을 정의하고 생활권의 범위 인식 연구의 흐름을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근린 주거환경 만족도 연구를 통해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청년 관련 연구의 흐름을 확인하였다.

(2)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생활권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조사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대상지 선정에 따라 신촌생활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범위를 좁혔다. 표본 크기는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4명 이상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설계하였다. 조사 방법은 일대일 면접조사와 함께 신촌생활권 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면접조사 지역은 연세대학교 서문-연희동 일대, 연세대학교 동문-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일대, 신촌역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표본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조사 기준시점은 2022년 7월 1일이며, 조사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하였다. 설문의 질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 구성 및 내용 등을 수정하였고 설문 시간 단축을 위해 응답 표기 방법을 조정하였다. 3주간 진행된 본 조사 결과 총 11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신촌생활권에 거주하지 않는 설문자와 부정확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03부의 설문을 최종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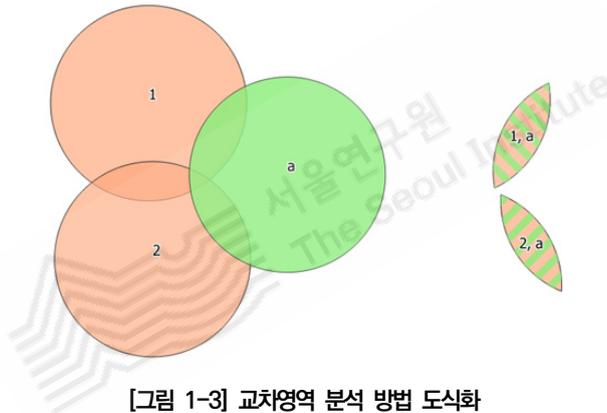
(3) 신촌생활권 청년 거주자의 생활권 인식 기초분석

신촌생활권 청년 거주자의 생활권 인식 기초분석 부문에서는 설문 내용 시각화, 지도 수치화, 기초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공간인식 및 만족도 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기준인 성과 연령으로 청년집단을 세분하였다. 또한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대학 인근, 중심상권 인근, 주거지 인근 등 응답자의 거주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 따른 구분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① 공간분석

공간분석에서는 응답자가 직접 그린 인식적 생활권의 범위를 Q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 위에 입력하였다. 지도 위에 입력된 응답자의 생활권 범위는 좌표가 부여되어 공간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공간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QGIS의 Geometry 함수를 활용하여 생활권 범위의 둘레와 면적에 대한 기초 정보를 산출하였다. 둘째, 중첩분석(vector overlay) 중 교차영역(intersection) 분석을 활용하여 신촌생활권과 인식적 생활권의 중첩 영역을 도출하고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교차분석은 입력 레이어의 객체와 중첩 레이어의 객체가 중첩하는 부분을 추출하는 분석으로 산출된 교차 레이어의 객체는 입력 및 중첩 레이어의 교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3] 교차영역 분석 방법 도식화

셋째,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인 k-means clustering 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지에 따른 군집을 도출하였다. k-means clustering의 분석 과정은 군집 개수인 k값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k개의 군집 중심점을 임의 할당하고 각 중심점을 평균으로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반복 측정을 통해 군집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최종 군집을 산출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기반으로, 공간분석에서는 주거지 위치를 표기한 점 데이터에 대하여 사전에 설정된 군집 개수를 바탕으로 2차원 거리를 계산하되, 평균점은 군집을 이룬 데이터들의 무게중심(barycenter)으로 적용하였다. k-means clustering에서 적절한 군집의 수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박인권 외, 2017; 이슬 외, 2022).

② 세부 집단 간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년 세부 집단 간 생활권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 간 평균 차이 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연령과 주거지별 분석은 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은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모를 때 표본으로부터 측정된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귀무가설은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로 설정한다. 분산분석은 3개 이상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F-검정을 통해 평균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이때 귀무가설은 '모든 집단의 평균은 같다.', 대립가설은 '모든 집단의 평균은 같지 않다.'로 설정한다.

더불어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구분과 직주일치, 계획 인지도 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활용하였다. 교차분석은 범주형 독립변수와 범주형 종속변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다. 귀무가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있다.'로 설정한다.

(4) 신촌생활권 청년 거주자의 생활권 환경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신촌생활권 청년 거주자의 생활권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부문에서는 청년들의 생활권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때 측정변수가 많고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핵심 요인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①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세부 부문별 청년 만족도 측정변수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핵심 요인으로 축소하고 이를 최종 실증모형에 반영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변수 간의 구조를 조사하여 핵심적인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통계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특히 측정 문항 간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상관성이 높은 문항들을 몇 개의 요인으로 묶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용된다(김세정, 2014). 주어진 정보를 소수의 주요 요인으로 축약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이해와 추가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과다한 정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모든 측정변수가 모든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특정 요인과 상관관계가 높은 측정변수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최창호·유연우, 2017).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보통 Kaiser-Meyer-Olkin(이하 KMO)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으로 확인한다. KMO는 변수 간 편상관계수가 얼마나 작은지 파

악하는 방식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변수들이 모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하나라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요인수 결정의 경우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을 기준으로 그 값이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거나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다. 또한, 요인과 변수 간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요인의 축을 적절히 회전시키는데 회전방법으로는 직각회전, 사각회전이 있으며 직각회전 중 Varimax 방법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②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전반적인 생활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순서형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순서형 로짓모형은 종속변수가 순서화되어 있어 변수의 다항선택성과 이산성이 일반 선행회귀식이 가진 기본가정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회귀방정식에 적합하도록 변환의 과정을 거친 계량분석방법이다(서원석, 2013). 따라서 종속변수가 순위형 변수일 경우 선행회귀모형보다 순서형 로짓모형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김호정, 2007).

순서형 로짓모형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는 수식 (1)과 같으며, 여기서 y^* 는 관측되지 않는 잠재적(latent) 변수로 관찰 가능한 y 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ϵ 은 오차항을 나타낸다. 가령, 가능한 범주가 M 개 존재한다면 잠재적 응답과 관찰응답의 관계는 수식 (2)와 같다. 서로 다른 M 개의 경계값(cutoff point)은 응답자가 어떤 집단에 속할지에 대한 내재된 기준이다.

$$y^* = \sum_{k=1}^n \beta_k x_k + \epsilon \quad (1)$$

$$y = \left\{ \begin{array}{l} 0 \text{ if } y_i^* \leq 0 \\ 1 \text{ if } 0 < y_i^* \leq \mu_1 \\ 2 \text{ if } \mu_1 < y_i^* \leq \mu_2 \\ \dots \\ m \text{ if } \mu_{M-1} < y_i^* \leq \mu_M \end{array} \right\} \quad (2)$$

이와 같은 순서형 로짓모형에서 종속변수는 확률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y 가 특정값 m 을 선택할 확률은 수식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은 일반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유사한 Pseudo R 인 Cox&Snell과 Nagelkerke를 활용한다.

$$\Pr(y_i \leq m) = \Pr(y^* \leq \mu_M) = \frac{e^{\mu_M - \sum_{k=1}^n \beta_k x_k}}{1 + e^{\mu_M - \sum_{k=1}^n \beta_k x_k}} \quad (3)$$

02. 생활권계획과 근린 인식연구

1_생활권계획

1) 생활권계획 논의의 도입

n분 도시 실현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후 위기 등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 요구에 대응으로서 등장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 발전은 이동 시간 단축과 접근성 강화라는 이점이 존재했다. 하지만, 자동차 발달에 따른 교외화, 직장과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는 역설적으로 자동차 수요를 증폭시켜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동 시간 증가에 따른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수반하게 되었다. 개인 이동성 증가와 인터넷의 발달은 도시·사회적 기능을 개인화하였으며, 이는 공공공간 이용의 감소와 지역공동체 및 커뮤니티 쇠퇴에도 영향을 미쳤다(Carmona, M. et al., 2009, 성은영 외, 2021).

n분 도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은 도시가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 변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기하였다. 지난 2020년 파리시장은 15분 이내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파리 15분 도시'를 재선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기존 포틀랜드의 완전한 근린, 멜버른의 20분 동네 등 근린주구 및 일상 생활권에 대한 개념은 지속해서 제시되어왔는데, 파리 15분 도시를 계기로 도시계획의 방향이 시간 도시계획(Chrono-Urbanism)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성은영 외, 2021).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n분 도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²⁾ 서울시에서는 2022년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6대 공간계획 중 첫 번째로 도보 30분의 자립생활권인 '보행일상권'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²⁾ 2021년 4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당시 김진에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오아시스 네트워크(10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1분 콤팩트 도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10분 역세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15분 부산' 등을 발표함

2) 생활권계획 적용 사례

생활권계획 적용 사례에서는 포틀랜드, 멜버른, 파리, 서울의 생활권계획 사례를 통해 기존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 포틀랜드 완전한 근린(complete neighborhood)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2012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강하게 연결된 도시조성을 목표로 ‘완전한 근린’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핵심은 도보나 자전거로 20분 이동 거리 내에 상업, 여가, 대중교통, 경제활동, 주거환경 접근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및 시설 공급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시민의 80%가 이동할 수 있는 근린생활권 조성을 강조하였다. 근린은 편의점과 식당가 등의 다양한 상업 시설과 주차장, 공립초등학교,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주요 시설로 포함하고 있으며, 상업 지구는 지역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멜버른 20분 동네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은 2019년 기후 위기 대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고밀도 개발과 보행 친화를 핵심 원칙으로 20분 동네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20분 동네는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한 20분 이내 접근 범위인 800m를 설정하였으며, 소매, 편의시설, 보건 서비스 등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활동센터(Neighborhood Activity Centers)를 설치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활동센터를 연계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파리 15분 도시(La ville de quart d’heure)

프랑스 파리는 2020년 도시 내 삶의 질 향상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파리 15분 도시 설계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도보 및 자전거 기준 15분 범위에 녹지, 문화 및 체육시설, 의료시설, 상업시설, 학교 등의 시설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계획의 핵심 내용은 통근 등의 이동 시간 감소, 다양한 용도 수용, 이웃 연결을 통한 도시 지역 강화이며, 특히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말 탁아소나 학교 운동장,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1층을 활용하여 놀이 공간 및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최하도록 하여 주

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4) 서울 보행 일상권

보행 일상권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무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주거 기능에 초점을 둔 공간을 개편하여 도보 30분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기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 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생활권을 의미한다. 물리적으로는 인구 2~3만 명, 행정동 1~2개로 구분되며, 역세권 중심지와 공원녹지 및 하천, 문화 및 생활 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하고, 부족 시설과 필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용도지역 계획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시민 개인에게는 다양한 도시 기능을 보행 30분 거리 내에서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며, 도시 차원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림 2-1] 보행 일상권 개념도

이들 사례에서 제시하는 n분 도시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재화와 서비스에 n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근린 생활 내 자족 기능, 다양한 구성원의 포용,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도시계획과 달리 시설 및 공간 중심의 계획이 아닌 시간 중심의 계획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이는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포용성과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생활권계획은 단순히 물리적 차원의 인프라 공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2030 서울생활권계획

(1) 생활권계획의 개념

생활권은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업무·공공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이며, 생활권계획은 생활권을 범위로 한 계획을 의미한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 도시계획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후속 계획으로 중간단계 계획인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생활권 발전 방향 및 도시관리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던 도시·주거환경, 교통, 경관, 주택 등 법정기본계획과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10분동네 프로젝트 등 도시관리 분야 행정계획의 내용을 생활권 단위로 종합하고 보완하는 계획이다.



[그림 2-2] 생활권계획의 위상

특히 생활권계획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지역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듣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거주민이 직접 지역발

전과 삶의 질 개선에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 눈높이 계획이자 과정 중심의 계획으로서 의의가 있다.

(2) 생활권계획 구분

생활권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의 생활권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5개 권역생활권(도심, 동북, 서북, 서남, 동남)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권역생활권은 지형, 하천, 도로 등의 자연적·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도시의 영향권, 중심지 기능, 토지이용 특성, 행정구역, 학군, 거주인구 특성, 관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분으로 고차의 업무·상업기능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2-3] 권역생활권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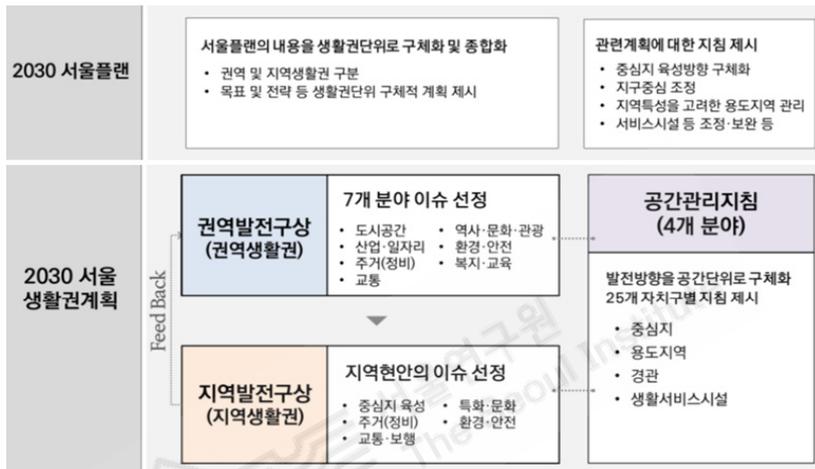
지역생활권의 기본적인 공간 단위는 행정동 경계와 자치구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거주인구 10만 명, 행정동 3~5개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연 환경 및 도시기반시설 및 대규모 시설, 관련 계획 등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토지이용 특성과 중심지 및 주거지 특성을 검토한다. 더불어 행정동 간 통행량과 법정동 구분, 역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최종 구분하였다.



[그림 2-4] 지역생활권 구분

(3) 생활권계획의 체계

생활권계획은 크게 2030 서울플랜의 내용을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고 종합하는 권역 발전구상 및 지역발전구상과 세분된 공간 단위에서 관련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공간관리지침으로 구분된다. 생활권계획의 수립내용은 해당 생활권의 특성과 잠재력, 문제점과 현안 과제를 도출하는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핵심 이슈, 미래상 및 발전방향, 목표 및 전략 제시를 포함하는 생활권계획 발전구상, 중심지, 용도지역, 경관, 생활 서비스에 관한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생활권계획 공간관리지침으로 구성된다.



[그림 2-5] 생활권계획 체계

(4) 생활권계획 운영실태

현재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 계획이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역할이 미비하고 생활권계획과 실행방안의 수립 시점 차이로 인한 수요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방대한 나열식 계획내용은 실효성이 낮은 항목 또는 중복된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생활권 특성에 맞는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양재섭 외, 2022). 또한 기존 진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시설 공급 중심의 계획이라는 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_근린생활권 인식연구

1) 근린생활권 인식에 관한 연구

생활권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도시계획가인 클라렌스 페리(Clarence A. Perry)의 근린주구 이론(Neighborhood Unit)에서 시작한다. 근린주구는 초등학교 하나를 중심으로 근린 단위가 구성되며, 주거 단지 밖은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슈퍼블록의 형태이다. 내부 교통망과 소규모 공원, 기타 활동을 위한 오픈스페이스가 계획되어 있으며, 생활 시설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배치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근린주구 이론은 도시계획 및 개발에 있어 공간 단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개별 근린의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요소를 정립하는 역할을 하였다(신서경 외, 2021).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근린 및 생활권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조경연구회(1997)에 따르면 근린생활권은 거주자의 통근·통학, 쇼핑, 여가 등 기본적인 일상을 위한 활동 범위를 의미한다. 근린생활권의 범위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며, 초등학교, 유치원, 경로당, 마을회관 및 공공행정시설과 함께 병원, 약국, 은행, 근린 상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근린생활권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통적 근린주구 이론에 따라 계획된 근린의 범위와 실제 주민들이 인식하는 근린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운, 2003; 장한두, 2009; 김건형, 2010; 이형숙, 2011). 김재운(2003)과 김보아(2005)의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인식하는 생활권 범위가 계획상 도보 10분, 반경 800m 이내에 해당하는 근린주구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생활권 중심은 주로 백화점, 대형마트, 공원 등의 주요시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요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할 경우, 주택 주변 상가를 생활권의 중심으로 인지하였다.

장한두(2009)에 따르면 생활권의 범위를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즉, 초등학교 통학권으로 설정하였으며, 신도시의 자동차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도시 규모인 대생활권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근린의 범위를 아파트 단지의 범위로 인식하는 비율이 약 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도시 전체(23%), 근린주구(1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활권의 범위 인식도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생활권 범위 인식이 넓을수록 주거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권 범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원 접근성, 편의시설 접근성, 도로 접

근성이며, 주거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주택 자체 특성(전용면적, 노후도 등)과 지하철역까지 거리로 도출되었다.

김건형(2010)은 아파트 단지별 인지도를 활용하여 거주자들이 생활권을 인식하는 방식과 범위를 도출하고 이들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근린생활권을 인식하는 방식은 크기와 무관하게 간선도로와 국지도로 등 길을 따라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형, 길을 따르지 않고 범위의 개념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영역형, 경계형과 영역형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혼합형으로 구분하였다. 근린생활권의 범위는 크기에 따라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표시한 거주지 중심, 아파트 단지를 초과하여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표시한 경우, 인접 지역을 초과하여 인접 블록을 포함하여 표시한 경우, 인접 블록을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인접 블록 2개 이상을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는 랜드마크시설과 자연환경 및 대로를 중심으로 근린 영역을 구분하였고, 근린생활권의 범위를 아파트 단지 범위보다 넓게 인식하는 비율이 전체의 78%로 도출되었다.

특정 연령에 따른 생활권 인식연구는 주로 교육적 관점에서 공간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아동(김수영, 2010; 허윤선 외, 2012; 서일교·남상준, 2019)과 고령화 사회 진입과 사회적 배제 측면에서 다른 계층과 차별점이 존재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일교·남상준(2019)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동네 인식을 연구하였다. 백지도를 활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장소와 동네의 범위를 표시하고, 면담을 통해 장소 경험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네 인식의 범위가 넓고, 주변 지형지물을 활용하여 동네의 범위를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장소의 비중이 높을수록 동네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아(2005)는 분당신도시를 사례로 중심 장소와 연령, 소득에 따라 근린생활권 인식을 살펴보았다. 생활권 내 중심 장소는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사거리 등의 교통중심지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원으로 나타났다. 61세 이상 노인이 인지하는 근린생활권 평균 면적은 236,992㎡로 다른 연령 평균(635,088㎡)에 비해 현저하게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식된 근린생활권의 면적은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숙(2011)은 두 지점 간 인식 거리를 측정하는 인지된 접근성 측면에서 노인들의 근린시설 도보 접근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들이 인지하는 근린시설 접근성은 성별, 시설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도보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공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인회관, 종교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상점은 여성 노인의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음식점·술집은 남성 노인의 더 자주 이용하였다. 근접희망시설에 대한 응답 결과 병원, 종교시설, 공원, 재래시장, 노인회관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과 노인회관은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근접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근접희망시설 순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린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정착 차원에서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다. 이성준(2014)과 서원석·박기덕(2020)은 다중회귀모형을, 김현민·신현주(2018)와 안용인(2019), 김주현·안용진(2020)은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이 적용되기도 하였는데 윤은영(2020)은 이웃 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에, 전준형·박진아(2020)는 보행환경의 조절효과에 주목하였다. 이후의 연구는 분석 대상을 세분화, 다각화하여 진행되었다. 윤소영(2021)은 고령자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김세정(2014)은 외국인에, 박효숙·이경환(2018)은 여성에, 권세연·박환용(2014)은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거주지역이나 점유형태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서원석(2013)은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정착 만족도 형성과정을 파악하였고, 원재웅·이재수(2018)는 임대주택 유형별 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에 관한 연구도 활기를 띠었으며, 전반적인 흐름은 이전과 같았다. 이호연(2018)과 손경민·진장익(2020), 임해린(2021), 서경택(2022), 안균섭·진은애(2022), 이현정·박상우(2022)는 청년들의 주거환경 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구조방정식 경로모형, 조절효과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었다. 또 1인가구의 가파른 증가와 청년 계층이 그 증가세의 중심에 있음을 감안하여 청년 1인가구에 대한 분석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현정·김모윤(2019)과 김선주(2020), 민충근(2021), 임준홍(2021)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권정표(2022)는 그중에서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청년들의 주거환경 만족도 형성에 있어 부문별 만족도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이호연(2018)은 안전성과 편리성, 쾌적성, 독립성, 청년친화성 요인을 반영하였고, 신명철·이재수(2019)는 주거지 안전 및 환경, 편의시설 및 교통 접근성, 공공시설 접근성 등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임준홍(2021)은 요인분석을 통해 재해안전, 편의시설, 환경, 문화·관광·스포츠로 구분되는 요인을 추출하여 이를 고려하였다.

주거환경 만족도의 결정 외에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김옥진·김태연(2020)과 박주현·이경환(2020)은 각각 건강, 범죄 두려움으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범위를 넓혀, 근린 환경 요소가 주민의 의식, 태도, 관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는 홍영화(2013)와 이경영·정문기(2019)의 연구가 있는데 각각 영역태도,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또 김수영 외(2017)는 삶의 만족도를 통하여 정주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지갑성(2020)은 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여성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3_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신촌생활권 청년 거주자의 생활권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생활권 환경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음의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생활권'으로 설정하였다. 최근 도시계획의 흐름은 거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이동 시간 단위의 시간 중심 계획을 채택하고 있다. n분 내에 통근·통학, 쇼핑, 여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포용, 상호작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행정구역 경계 혹은 특정 지구, 아파트 단지 단위로 진행되어오던 근린의 범위를 생활권이라는 공간 단위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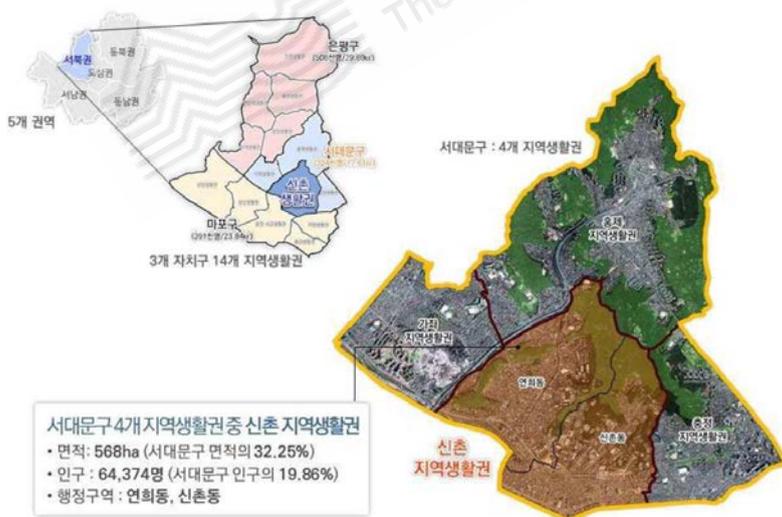
둘째, 기존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청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서 진행된 공간 인식 관련 연구에서는 아동 혹은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등장한 생활권 중심 플랫폼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들은 생활권 내 공동체에 호의적인 특징을 띠고 있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권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청년 내에서도 성, 연령, 거주지의 세분화를 통해 분류별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의 공간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간분석을 포함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식적 공간의 범위를 조사하는 연구와 근린 환경 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는 분리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공간인식 연구는 인식된 공간을 시각화하거나 성, 연령 등의 인구·사회학적 기준으로 공간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주거환경 만족도 결정요인 연구는 생활권에 대한 태도, 경험, 관계 등 주관적인 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이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생활권 인식을 양적, 질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에 생활권과 관련한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공간적 관점에서 생활권의 범위를 측정하고, 공간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하였다.

03. 생활권 인식 기초분석 결과

1_신촌생활권 개요

신촌생활권은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가 포함된 서북권(광역)에 해당하며, 서대문구 4개 지역생활권 중 하나이다. 행정구역은 신촌동과 연희동이며, 면적은 약 5.68km², 인구는 2021년 기준 54,030명으로 서대문구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신촌생활권은 이화여대와 연세대가 위치한 대학가 주변으로 걷고싶은거리 등 쇼핑특화가로의 중심지가 형성되어 있다.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 주거지와 신촌동 중심 대학가 주거지 특성이 혼재한 지역이며, 안산과 공동공원, 홍제천의 자연환경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3-1] 신촌생활권 개요

1)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

2030 서울플랜(2014)에서는 신촌생활권의 대학 밀집 특성을 활용하여 창조문화산업을 강화하고 홍제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5)과 신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2016)에서는 대학가 주변 주거지 특성은 유지하되,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신촌 문화 및 공동체 재산을 제시하고 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2014)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14)에서는 보행자 편의 강화, 경전철 서부선 신설을 통한 서남권과의 연계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표 3-1] 신촌생활권 상위계획 현황

계획 및 정책	내용	세부 내용
2030 서울플랜	대학 밀집지역 특성을 활용한 창조문화산업 거점으로 특화육성	미래산업 고용기반 확충을 통한 중심 기능 강화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한 주거지 관리
		주변공간의 활용도 제고 및 생태하천 복원
		지역자원의 연계 육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대학가 주변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특성 유지	지역별 다양한 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되, 자연환경 활용 및 경관 보호 필요
		대학가 주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 및 저렴주택 공급
		독립문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정체성 제고
신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신촌 문화정체성 확립을 통한 지역재생	청년문화 재생: 신촌 문화플랫폼 구축, 오픈캠퍼스
		신촌경제 재생: 상권공간 개선, 청년창업 활동지원, 신촌 경제덕터자문단 운영
		신촌하우스 재생: 마을공간 개선, 청년 주거지원, 집수리도서관 조성
		공동체재생: 신촌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공동체활동 지원
		공공기반시설 재생: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 신촌 중심가로 연계강화, 공원정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 지구 조성사업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걷고싶은거리 조성	명물거리 일대 도로 확폭 및 포장 개선 등 걷고싶은거리 조성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운행 통제
		대중교통의 활성화
		도로교통 및 보행환경의 개선
		도심상업지의 활성화 및 도심재생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경전철 서부선 신설로 서남권과의 연계성 강화	연희초교→연세대학교→신촌역(2호선) 연결

서대문구의 신촌생활권 관련 정책 사항으로는 청년 문화전진기지 조성, 신촌역 주변 정비 및 활성화 계획 추진,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 이대 52번가 청년몰 조성사업, 청년 창업주거공간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산을 중심으로 상설 공연장 건립과 지역대표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지원에 힘쓰고 있다.

2) 생활권계획

신촌생활권은 상위계획, 지역 현안,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생동감 있는 신촌생활권”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4개 목표, 8개 실현 전략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심지, 특성주거지, 경관, 생활서비스시설로 구성된 공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현황분석에 따른 관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1) 지역발전구상

신촌생활권의 주요 현안은 대학 밀집 지역으로 창조문화산업 강화 및 상업지역 육성·관리가 필요,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보행 환경개선,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 청소년/청년/외국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보, 문화시설과 지역축제/특화거리를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학 자원 활용, 연희동 저층 주거지 관리, 청년인구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주민 여가 기회 확대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 공간관리지침

공간관리지침은 크게 중심지, 특성주거지, 경관, 생활서비스시설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신촌생활권은 서대문구 내에서도 지역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³⁾, 대학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관광·교육·산업의 거점인 지역이다. 따라서 대학자원과 지역상권을 연계하여 지역재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성주거지에는 연희동 일대(주거지 관리·정비), 공동근린공원과 안산 일대(저층주거지 특성 유지), 연세대·이화여대 일대(주거지역 환경개선 방안 마련)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경관은 안산 주변과 흥제천 일대 자연경관 관리와 특화거리 경관관리를, 생활서비스시설의 경우 주차장,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우선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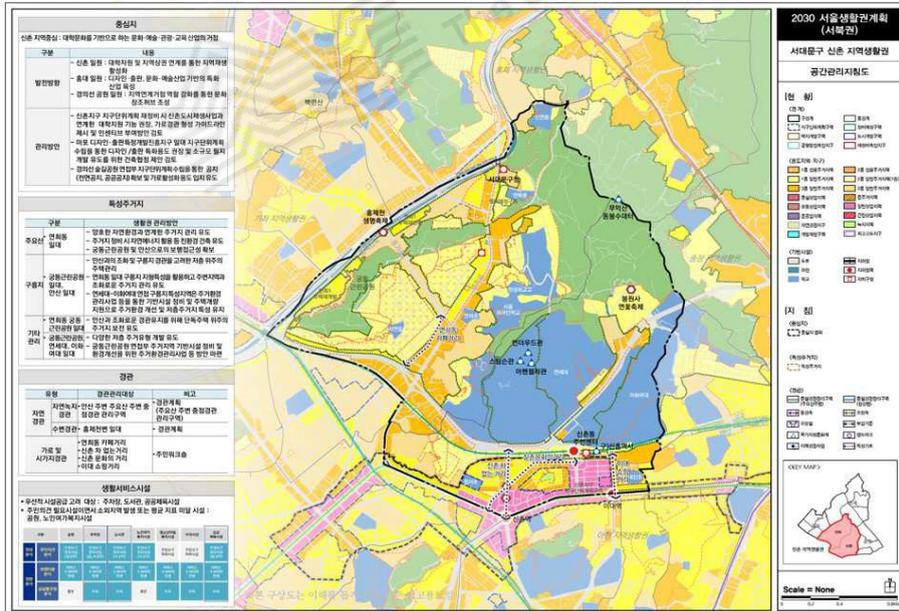
3) 서대문구의 중심지 체계는 지역중심 1개(신촌), 지구중심 3개(홍제, 남가좌, 아현)으로 이루어짐

■ 신촌 지역발전구상도



[그림 3-2] 신촌생활권 지역발전구상도

■ 신촌 공간관리지침도



[그림 3-3] 신촌생활권 공간관리지침도

2_설문 구성 및 응답자 특성

1) 설문 구성 및 내용

설문은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영역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권 범위, 생활권 만족도, 정책인지 및 중요도, 관계 및 커뮤니티이다. 설문 항목 및 측정 방법과 설문지는 [부록]에 기술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영역은 다시 통계분류를 위한 사항과 주거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통계분류를 위한 사항에서는 성별, 태어난 연도, 직업, 직장 또는 학교 소재지, 학력, 월평균 소득, 자동차 보유 등을, 주거 특성에서는 거주지, 주택 형태, 점유 형태, 거주기간, 가구원 수 등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청년의 생애주기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경제적 독립과 가족과의 동거 여부를 포함하였다.

생활권의 범위 영역은 신촌생활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인식하는 생활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활권을 결정짓는 기준과 실제 물리적 범위를 조사하였다. 생활권의 경계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하여 그 분포와 둘레, 넓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생활권 만족도 영역은 응답자가 체감하는 만족도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이를 위하여 생활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함께 생활권 내 이용시설 만족도, 생활권 환경 만족도를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생활권 환경의 경우 만족도와 더불어 응답자가 인식하는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과 추가로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정책인지 및 중요도 영역은 생활권계획 인지 여부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030 서울생활권 계획 인지 여부, 신촌생활권의 지역발전구상과 공간관리지침 계획의 중요도, 정책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희망하는 정책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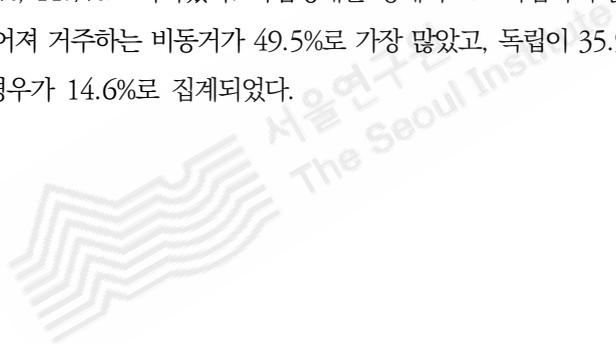
관계 및 커뮤니티 영역은 주민 간 상호작용 및 공동체 활동을 살피는 영역으로 이웃과의 관계, 생활권의 이웃 교류 용이성, 생활권 소속감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은 43.7%, 여성은 56.3%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19~24세 47.6%, 25~29세 28.2%, 30~34세 24.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생이 48.5%로 가장 많았으며,

프리랜서를 포함한 직장인 26.2%, 대학원생 23.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2.9%, 대학교 재학 45.6%, 대학교 졸업 44.7%, 대학원 졸업 6.8%로 비교적 높은 학력을 지닌 것으로 집계되었다. 월평균 소득이 없는 경우가 27.2%, 100만 원 미만 24.3%,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4%, 300만 원 이상이 14.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3.6%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는 5.8%로 매우 적었으며, 따라서 대부분 응답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거주지역은 행정동 기준 신촌동 55.3%, 연희동 34.0%이고, 연희동 경계부에 거주하는 연남동 거주자 3명과 이대 기숙사가 위치한 북아현동 거주자 8명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 형태로는 연립/다세대주택이 44.7%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 27.2%, 기숙사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는 월세가 63.1%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세 18.4%, 자가 8.7% 등의 순이다.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31.1%, 2년 이상 5년 미만 18.4%, 5년 이상이 13.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구원 수는 1명이 62.1%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인가구였으며, 2명, 3명, 4명이 각각 18.4%, 7.8%, 11.7%로 나타났다. 독립형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가족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거주하는 비동거가 49.5%로 가장 많았고, 독립이 35.9%,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14.6%로 집계되었다.



[표 3-2]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측정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45	43.7
	여	58	56.3
연령	19~24세	49	47.6
	25~29세	29	28.2
	30~34세	25	24.3
직업	대학생	50	48.5
	대학원생	24	23.3
	직장인(프리랜서 포함)	27	26.2
	무직	2	1.9
학력	고등학교 졸업	3	2.9
	대학교 재학	47	45.6
	대학교 졸업	46	44.7
	대학원 졸업	7	6.8
월평균 소득	소득 없음	28	27.2
	100만 원 미만	25	24.3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1	20.4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4	13.6
	300만 원 이상	15	14.6
자동차 보유	예	6	5.8
	아니오	97	94.2
거주지역	신촌동(대신동, 대현동, 신촌동, 창천동)	57	55.3
	연희동	35	34.0
	연남동	3	2.9
	북아현동	8	7.8
주택 형태	아파트	8	7.8
	연립/다세대주택	46	44.7
	단독주택	4	3.9
	기숙사	15	14.6
	오피스텔	28	27.2
	세어하우스	2	1.9
점유 형태	자가	9	8.7
	전세	19	18.4
	월세	65	63.1
	장기임대	1	1.0
	기타	9	8.7
거주기간	1년 미만	38	36.9
	1년 이상 2년 미만	32	31.1
	2년 이상 5년 미만	19	18.4
	5년 이상	14	13.6
가구원 수	1명	64	62.1
	2명	19	18.4
	3명	8	7.8
	4명 이상	5	11.7
독립 형태	동거	15	14.6
	독립	37	35.9
	비동거	51	49.5

3_생활권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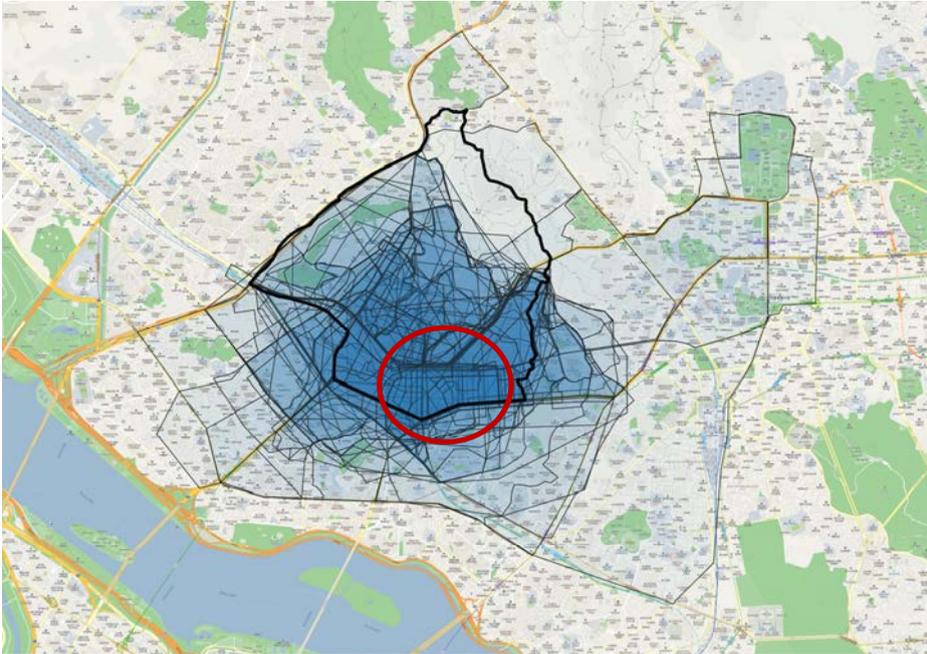
1) 인식적 생활권의 범위

인식적 생활권의 범위는 Claudia, J. C. et al.(2001)의 연구에 착안하여 응답자가 직접 그린 생활권 인식지도를 바탕으로 생활권의 둘레와 면적, 중첩률을 계산하였으며, 경관 분석에서 주로 활용되던 형태지수를 적용하여 형태복잡도를 측정하였다. 더하여 집에서 부터 걸어서 가는 데 걸리는 시간, 집에서부터 버스 정거장 수, 집에서부터 지하철 정거장 수를 조사하였다.

Claudia, J. C.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네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거주자들의 인식적 공간 범위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구조사의 경계를 재설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간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둘레와 면적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다음으로 각 인식지도의 중심을 측정한 중심점 지표를 포함하였다. 끝으로 전체 응답자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인식지도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공간근접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주민들의 인식적 공간 범위와 실제 인구조사(센서스) 경계와 비교하기 위해 중첩 비율을 활용하였다. 형태지수는 주로 식생, 하천 등의 자연경관 분석을 위해 활용되어왔다(서주환 외, 2002; 이상우·황순진, 2007; 지승용 외, 2016). 형태지수는 면적 대비 둘레로 표현되며 공간을 얼마나 복잡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토지이용, 도로 등의 공간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생활권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형태복잡도를 활용하였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복잡한 형태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생활권 인식지도는 [그림 3-4]와 같다. 검은색 굵은 선으로 표기된 부분은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 따른 신촌생활권의 경계이고, 응답자의 인식지도는 파란색 면으로 중첩하여 시각화하였다. 가장 많이 중첩된 공통 지역([그림 3-4]의 붉은색 굵은 선)은 남북으로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정문', 동서로 '신촌 차 없는거리'에서 '이대 쇼펍거리'로 이어지는 범위로 나타났다.

계획된 신촌생활권은 둘레 10.881km, 면적 5.650km², 형태복잡도 1.926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생활권의 둘레는 최소 1.923km에서 최대 21.213km이며, 평균은 6.823km였으며, 면적은 최소 0.148km²에서 최대 16.969km², 평균은 2.012km²로 나타나 인식적 생활권의 둘레와 면적 모두 신촌생활권보다 훨씬 작았다.



[그림 3-4] 전체 응답자의 생활권 인식지도

전체 응답자 중 신촌생활권 면적보다 크게 인식한 응답자는 4.9%로 매우 적었다. 범위를 축소하여 응답자가 거주하는 행정동 면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응답자의 40.8%가 본인이 거주하는 행정동 면적의 50% 미만으로 매우 작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3-3] 인식적 생활권 넓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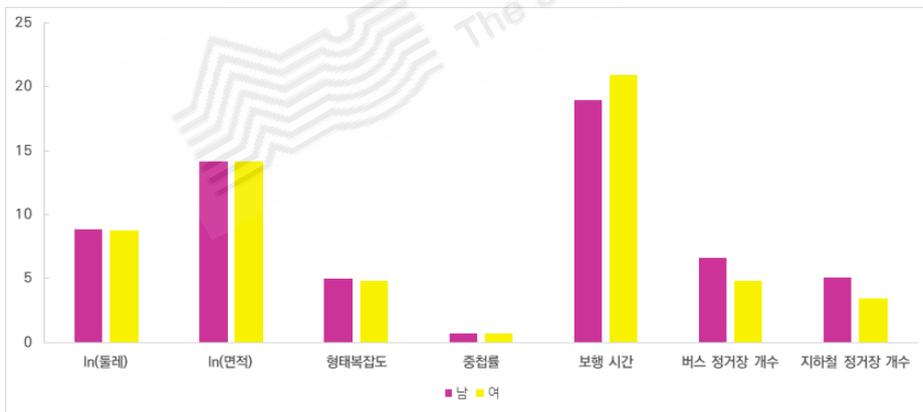
측정항목		빈도(명)	비율(%)
신촌생활권 면적	크게 인식	5	4.9
	작게 인식	98	95.1
응답자 거주 행정동 면적	크게 인식	33	32.0
	작게 인식	28	27.2
	50% 미만으로 작게 인식	42	40.8

인식된 생활권의 형태복잡도는 최소 1.25에서 최대 15.37이고, 평균 4.9로 신촌생활권 (1.926)보다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적 생활권과 계획적 생활권의 중첩률은 최소 13%에서 최대 100%이며, 평균 71%가 겹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집에서부터 평균 20.09분, 버스 정거장 5.63개, 지하철 정거장 4.18개까지를 생활권의 범위로 인식하였다.

[표 3-4] 인식적 생활권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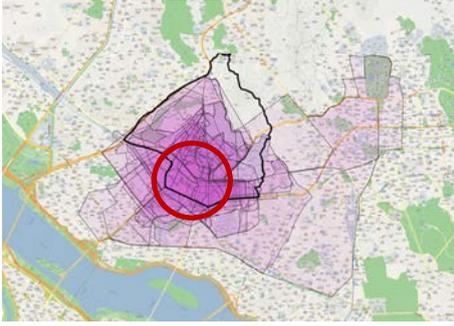
측정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둘레(km)	103	6.829	3.303	1.923	21.213
면적(km ²)	103	2.012	2.144	0.148	16.969
형태복잡도	103	4.91	2.47	1.25	15.37
중첩률	103	0.71	0.28	0.13	1
보행 시간	103	20.09	8.60	2	40
버스 정거장 수	103	5.63	4.27	0	30
지하철 정거장 수	103	4.18	4.22	0	20

성별에 따른 생활권 인식을 비교하면, 생활권의 둘레는 남성 평균 7.145km, 여성 평균 6.586km이며, 면적은 남성 평균 2.156km², 여성 평균 1.901km²로 남성이 여성보다 둘레와 면적 모두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태복잡도와 중첩률은 각각 남성 5.0과 70%, 여성 4.9과 70%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보행 시간에 따른 생활권 범위는 남성 평균 19.0분, 여성 평균 20.9분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범위를 생활권으로 인식하였다. 집에서부터의 버스 정거장 개는 남성 6.7개, 여성 4.9개이고 지하철 정거장 수는 남성 5.1개 여성 3.5개로 나타나 남성이 집에서부터 더 먼 범위까지 생활권으로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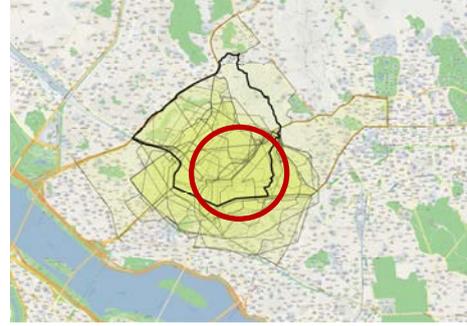


[그림 3-5] 성별 인식적 생활권 범위

인식지도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신촌역 인근 창천동을 공통적인 생활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인식적 생활권은 창천동과 그의 북서쪽인 연세대학교 서문 일대 중심으로 표기되었으며, 여성은 그의 동쪽인 이화여자대학교 인근인 대신동과 대현동을 중심으로 표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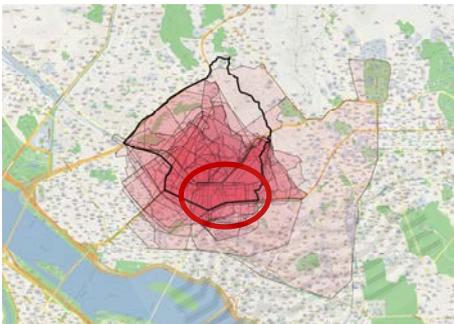


[그림 3-6] 성별 생활권 인식지도(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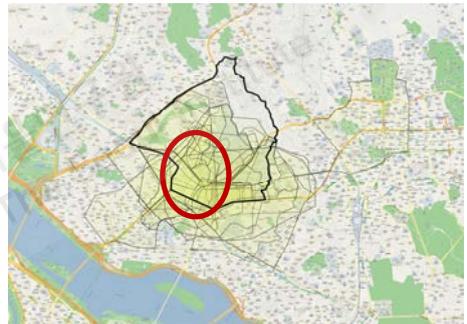


[그림 3-7] 성별 생활권 인식지도(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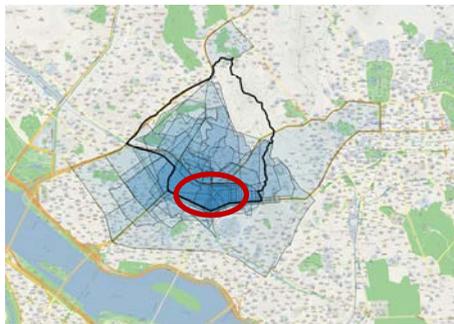
연령별 인식지도를 살펴보면, 19~24세는 신촌역과 이대역을 중심으로, 25~29세는 신촌 차 없는 거리 기준 서쪽인 연희동 남쪽 일부와 창천동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인식하였다. 30~34세는 신촌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연령별 생활권 인식지도(19~2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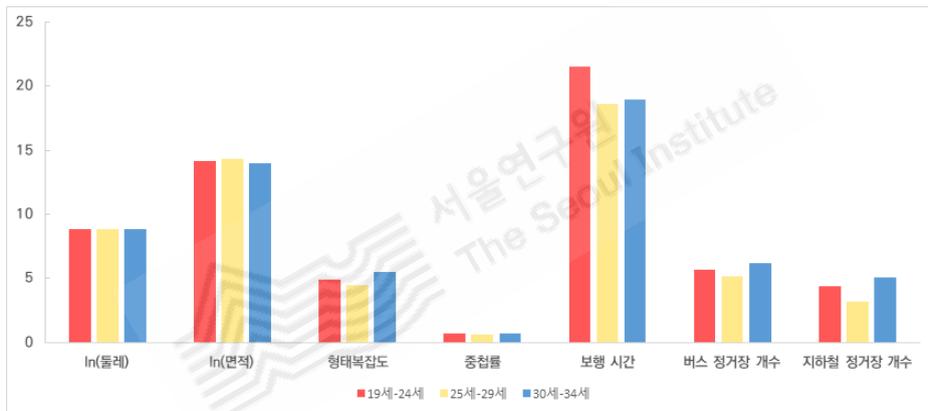


[그림 3-9] 연령별 생활권 인식지도(25~29세)



[그림 3-10] 연령별 생활권 인식지도(30~34세)

연령에 따른 생활권 인식을 비교하면 생활권의 둘레는 19~24세 평균 6.688km, 25~29세 7.105km, 30~34세 6.787km로 25~29세가 가장 크게 인식하였다. 면적도 19~24세 평균 2.021km², 25~29세 2.107km², 30~34세 1.888km²로 25~29세가 가장 크게 인식하였다. 형태복잡도는 19~24세 평균 4.9, 25~29세 4.4, 30~34세 5.5로 30~34세 집단이 생활권을 가장 자세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첩률은 세 집단 모두 70%로 도출되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24세는 집에서부터 평균 21.5분, 25~29세 18.6분, 30~34세 19.0분으로 19~24세 집단이 생활권 인식에서 가장 긴 보행 시간 범위를 보였다. 집에서부터 버스 정거장 수는 19~24세 5.7개, 25~29세 5.1개, 30~34세 6.2개였으며, 집에서부터 지하철 정거장 수는 19~24세 4.4개, 25~29세 3.2개, 30~34세 5.0개로 나타나 30~34세 집단이 생활권 인식에서 가장 많은 정거장 수 범위를 보였다.



[그림 3-11] 연령별 인식적 생활권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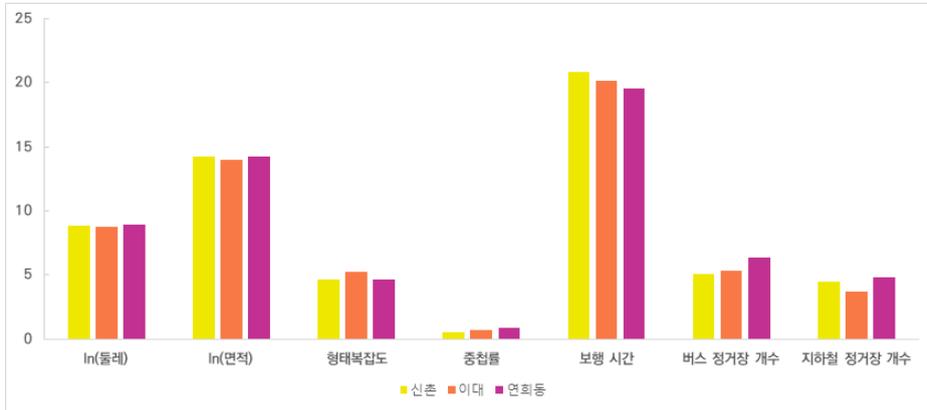
본 분석에서는 청년집단의 거주지별 세분을 위해 k-means clustering 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지에 따른 군집을 도출하였다. 신촌생활권의 공간 특성상 신촌역 인근 중심상권 일대, 연희동 일반주거지 일대, 이화여대 인근 원룸촌 일대로 구분될 것을 예측하여 군집 수를 3개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신촌역과 연희동 남쪽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신촌 거주 집단(이하 신촌), 이대역과 이화여대 기숙사를 중심으로 한 이대 거주 집단(이하 이대), 연희동 거주 집단(이하 연희동)으로 구분되었다.



[그림 3-12] 거주지별 k-means clustering 결과 시각화

거주지에 따른 생활권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생활권의 둘레는 신촌 평균 7.201km, 이대 6.253km, 연희동 7.449km이며, 면적은 신촌 2.283km², 이대 1.622km², 연희동 2.420km²로 연희동이 가장 크게 인식하였다. 형태복잡도는 신촌 4.6, 이대 5.2, 연희동 4.6으로 이대의 생활권 인식이 가장 자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첩률은 신촌 평균 50%, 이대 평균 70%, 연희동 평균 90%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⁴⁾를 보였다. 연희동의 인식적 생활권은 계획적 생활권과 많은 부분 일치하였지만, 신촌은 중첩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행 시간 범위의 경우 신촌에서는 집에서부터 평균 20.8분, 이대 20.1분, 연희동 19.5분으로 신촌이 가장 긴 시간 범위를 생활권으로 인식하였다. 집에서부터 버스 정거장 개는 연희동(6.4개), 이대(5.4개), 신촌(5.1) 순으로, 집에서부터 지하철 정거장 수는 연희동(4.8개), 신촌(4.5개), 이대(3.7개) 순으로 도출되었다.

4) 거주지별 중첩률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값 9.364,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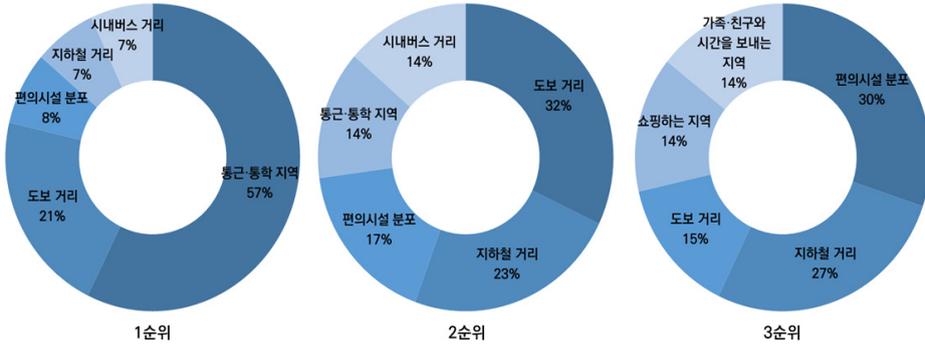
[그림 3-13] 거주지별 인식적 생활권 범위

2)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을 살펴본 결과 신촌생활권 거주 청년이 생활권 범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통근·통학 지역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의 중복 응답을 고려할 때 전체 응답자의 24.4%가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으로 통근·통학 지역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집에서부터의 도보 거리(15.9%), 집에서부터의 지하철 거리(8.4%)를 기준으로 범위를 결정짓는다고 응답하였다. 1순위 응답의 경우 통근·통학 지역(57%), 2순위는 집에서부터의 도보 거리(32%) 비율이 가장 높아, 활동 영역과 도보 이동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3순위는 편의시설 분포(30%)의 비율이 높아, 주요 활동과 거리 기준이 충족된다면 시설과 관계의 측면에서 생활권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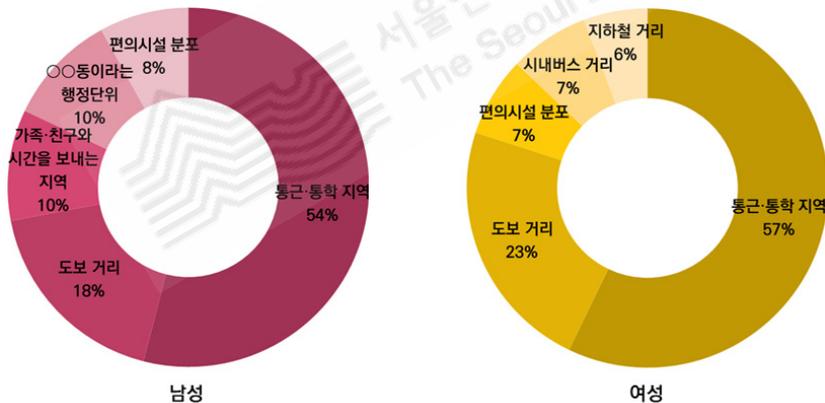
[표 3-5]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

순위	생활권 범위	비율	순위	생활권 범위	비율
1	통근·통학 지역	24.4	12	친한 사람이 사는 지역	2.5
2	도보 거리	15.9	13	도로 경계	2.2
3	지하철 거리	8.4	14	□통□반이라는 행정단위	2.2
4	편의시설 분포	7.2	15	혐오시설 분포	1.9
5	시내버스 거리	5.9	16	단골 가게가 있는 지역	1.9
6	여기를 보내는 지역	4.4	17	쇼핑하는 지역	1.6
7	배달 배송 거리	3.8	18	아는 사람이 사는 지역	1.6
8	가족·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지역	3.4	19	자전거 거리	1.3
9	선호시설 분포	3.1	20	△△구라는 행정단위	1.3
10	○○동이라는 행정단위	3.1	21	지역 커뮤니티 활동 지역	0.9
11	마을버스 거리	2.8	22	중고 거래 가능 범위	0.0



[그림 3-14]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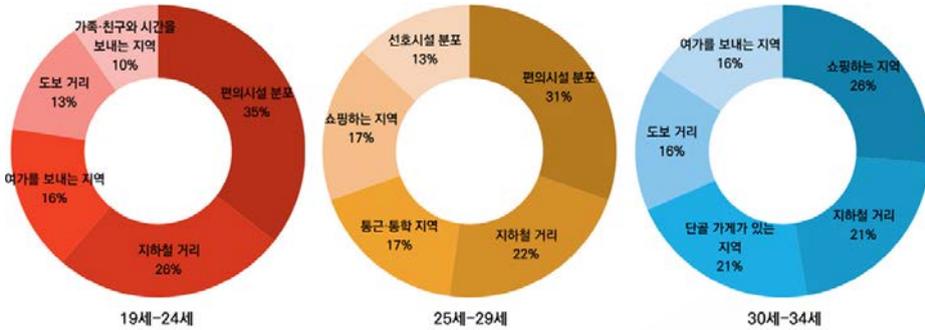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 1순위의 차이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통근·통학 지역을 근거로 생활권 범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은 가족·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지역, ○○동이라는 행정단위, 편의시설 분포 등 비교적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었지만, 여성의 경우 도보, 시내버스, 지하철 등 이동 수단별 거리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성별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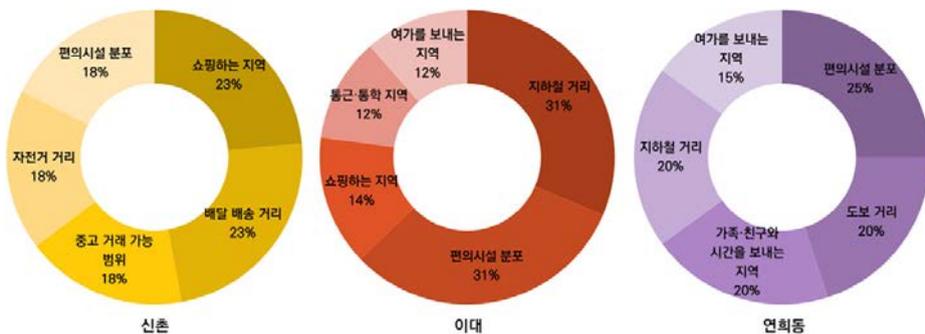
연령에 따른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 집단에서 1순위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으로 통근·통학 지역을, 2순위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은 도보 거리를 꼽았다. 3순위 비율을 살펴보면, 19~24세와 25~29세는 편의시설의 분포를, 30~34세는 소평하는 지역을 생활권 범위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였다. 관계 항목에 있어 19~24세

는 가족·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지역을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으로 인식하였으나, 30~34세는 단골 가게가 있는 지역을 꼽았다. 나이가 적은 집단의 경우 가족, 친구 등 기존 관계를 중심으로 인식하지만, 나이가 많은 집단은 생활권에서 새롭게 형성된 관계를 중심으로 인식하여 차이가 있었다.



[그림 3-16] 연령별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3순위)

거주지에 따른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 3순위 비율을 살펴보면, 신촌은 쇼핑하는 지역(23%), 이대는 집에서부터의 지하철 거리(31%)와 편의시설 분포(31%), 연희동은 편의시설 분포(25%)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과 달리 신촌은 배달 배송 거리, 중고 거래 가능 범위 등의 거주지 기반 디지털 플랫폼 이용 범위를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집에서부터 자전거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하철 거리를 주요 기준으로 인식하는 다른 거주 집단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림 3-17] 거주지별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3순위)

3) 직주 일치 여부

응답자의 거주지 행정동과 직장/학교 행정동의 일치 여부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와 직장/학교가 같은 응답자는 전체의 33%이며, 일치하지 않는 응답자는 67%로 도출되었다.

[표 3-6] 직주 일치 여부

측정항목		빈도(명)	비율(%)
직주 일치	일치	34	33.0
	비일치	69	67.0

성별에 따른 직주 일치 여부 간의 관계를 교차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정 결과 Pearson 카이제곱 통계량은 유의수준 5%에서 성별에 따른 직주 일치 여부의 비율 구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거주지와 직장/학교가 일치하는 경우(22.2%)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77.8%)보다 55.6% 낮고, 여성의 경우 거주지와 직장/학교가 일치하는 경우(41.4%)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58.6%)보다 17.2% 더 낮게 나타났다. 연령과 거주지에 따른 직주 일치 여부의 비율 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성별 직주 일치 여부 교차분석 결과

측정항목		직주 일치		합계	Pearson 카이제곱(p)
		일치	비일치		
성별	남	10 (22.20%)	35 (77.80%)	45 (100.0%)	4.205 (0.040*)
	여	24 (41.40%)	34 (58.60%)	58 (100.0%)	
전체		34 (33.00%)	69 (67.00%)	103 (100.0%)	

4_생활권 환경 만족도

1) 생활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생활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응답자가 인식한 생활권의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한 지표이다. 전반적 만족도는 -5점에서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응답자의 전반적 생활권 만족도는 최솟값 -3점에서 최댓값 5점, 평균 3.1점으로 도출되었다.

[표 3-8] 생활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측정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반적 만족도	103	3.1	1.347	-3	5

성별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는 남성이 3.18점, 여성이 3.03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생활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기준으로는 19~24세(3.16점), 30~34세(3.04점), 25~29세(3.03점) 순으로, 거주지 기준으로는 연희동(3.12점), 신촌(3.10점), 이대(3.08점) 순으로 도출되었다.

2) 생활권 내 이용시설 만족도

생활권 내 이용시설 만족도는 생활권 내에서 이용하는 16개 시설에 대한 만족도로 최솟값 1에서 최댓값 5이며, 전체 평균은 3.67점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내 이용시설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은 편의점(4.66점)이고, 다음으로 대중교통(4.39점), 카페 및 베이커리(4.14점), 음식점 및 호프(3.93점)가 위치하였다. 반면, 주차시설(2.50점)과 공공체육시설(2.98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었다.

성별에 따른 이용시설 만족도 차이는 전반적으로 여성 평균(3.8점)이 남성 평균(3.5점)보다 높았다. 특히 편의점(4.5점, 4.8점)과 스포츠시설(3.0점, 3.9점), 미용실 및 뷰티숍(3.3점, 4.0점)의 두 집단 간 만족도 평균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⁵⁾. 여성 집단의 경우 자주 이용하는 장소로 요가/필라테스/헬스장과 미용실을 기재하였는데, 잦은 이용 빈도가 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5) 성별 편의점 만족도에 대한 t-test 결과, t값 -2.239, 유의확률 0.0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성별 스포츠시설 만족도에 대한 t-test 결과, t값 -4.069,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성별 미용실 및 뷰티숍 만족도에 대한 t-test 결과, t값 -2.727, 유의확률 0.0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9] 생활권 내 이용시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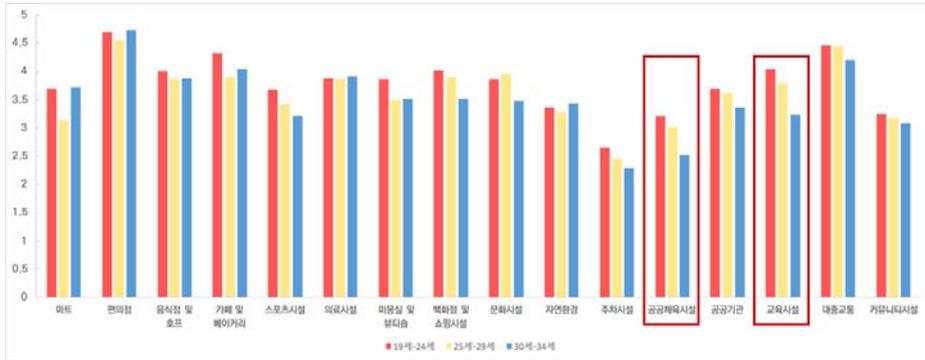
측정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마트	103	3.54	1.18	1	5
편의점	103	4.66	0.59	2	5
음식점 및 호프	103	3.93	1.01	1	5
카페 및 베이커리	103	4.14	1.00	1	5
스포츠시설	103	3.49	1.15	1	5
의료시설	103	3.88	1.00	1	5
미용실 및 뷰티숍	103	3.67	1.18	1	5
백화점 및 쇼핑시설	103	3.86	1.01	1	5
문화시설	103	3.80	1.20	1	5
자연환경	103	3.36	1.18	1	5
주차시설	103	2.50	1.11	1	5
공공체육시설	103	2.98	1.12	1	5
공공기관	103	3.59	0.96	1	5
교육시설	103	3.78	0.96	2	5
대중교통	103	4.39	0.77	2	5
커뮤니티시설	103	3.18	0.91	1	5



[그림 3-18] 성별 생활권 내 이용시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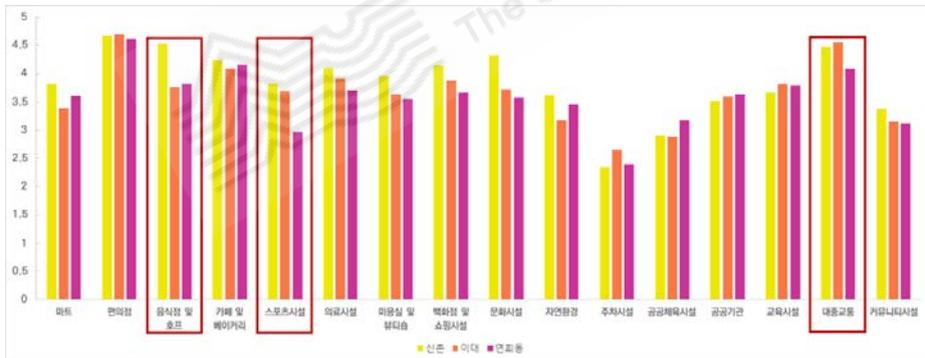
연령에 따른 이용시설 만족도 차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체육시설(3.2점, 3.0점, 2.5점)과 교육시설(4.0점, 3.8점, 3.2점)의 세 집단 간 만족도 평균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⁶⁾.

⁶⁾ 연령별 공공체육시설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값 3.229, 유의확률 0.0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교육시설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값 6.384 유의확률 0.0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9] 연령별 생활권 내 이용시설 만족도

거주지에 따른 이용시설 만족도 차이는 신촌(3.8점), 이대(3.7점), 연희동(3.6점)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및 호프(4.5점, 3.8점, 3.8점)와 스포츠시설(3.8점, 3.7점, 3.0점), 대중교통(4.5점, 4.6점, 4.1점)의 세 집단 간 만족도 평균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⁷⁾. 이들 시설은 연희동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형성되었는데, 역세권 중심의 신촌, 이대 생활권과 달리 연희동 생활권은 주거지 기반 생활권으로 다양한 상업시설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20] 거주지별 생활권 내 이용시설 만족도

7) 거주지별 음식점 및 호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값 4.892, 유의확률 0.0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거주지별 스포츠시설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값 5.436, 유의확률 0.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거주지별 대중교통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값 3.903, 유의확률 0.0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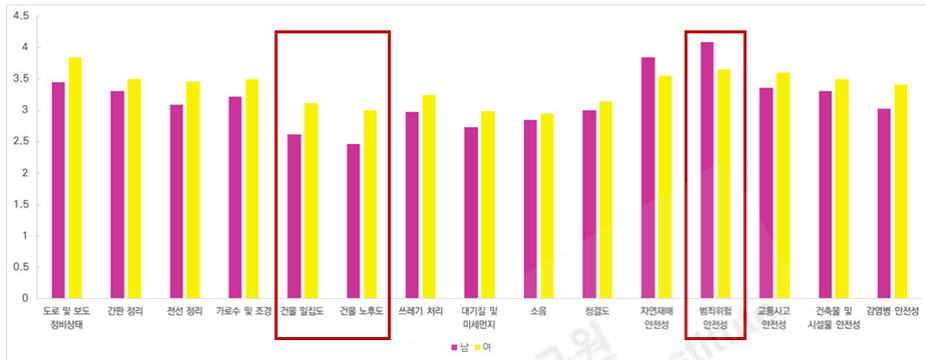
3) 생활권 환경 만족도

생활권 환경 만족도는 28개 세부 부문에 대한 만족도로 최솟값 1에서 최댓값 5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48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생활권 환경 요소는 대중교통 접근성(4.46점)이고, 다음으로 도보 이용성(4.32점), 편의시설 개수(4.26점), 편의시설 접근성(4.16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은 생활권 환경 요소는 건물 노후도(2.77점)이고, 이웃과 관계 형성에 도움(2.79점), 대기질 및 미세먼지(2.87점) 또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형성되었다.

[표 3-10] 생활권 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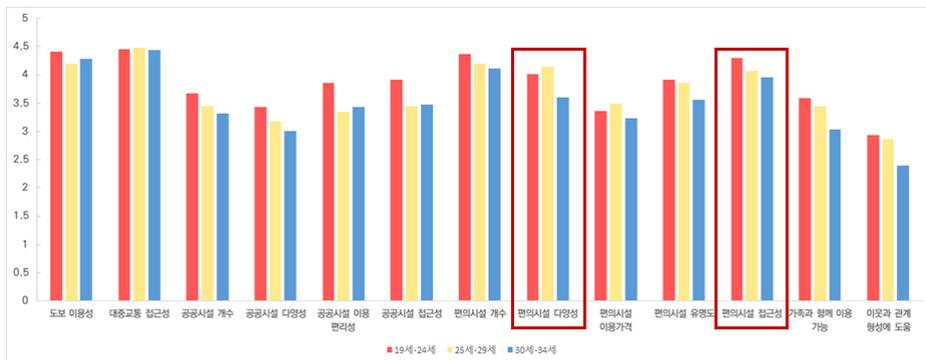
측정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도보 이용성	103	4.32	0.78	2	5
대중교통 접근성	103	4.46	0.67	2	5
공공시설 개수	103	3.52	0.87	2	5
공공시설 다양성	103	3.25	0.99	1	5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103	3.61	0.97	1	5
공공시설 접근성	103	3.68	0.96	1	5
편의시설 개수	103	4.26	0.84	2	5
편의시설 다양성	103	3.95	1.03	1	5
편의시설 이용가격	103	3.37	1.01	1	5
편의시설 유명도	103	3.82	0.84	2	5
편의시설 접근성	103	4.16	0.79	2	5
가족과 함께 이용 가능	103	3.42	1.12	1	5
이웃과 관계 형성에 도움	103	2.79	1.04	1	5
도로 및 보도 정비상태	103	3.67	1.02	1	5
간판 정리	103	3.42	1.08	1	5
전선 정리	103	3.30	1.14	1	5
가로수 및 조경	103	3.38	0.96	1	5
건물 밀집도	103	2.90	1.11	1	5
건물 노후도	103	2.77	1.07	1	5
쓰레기 처리	103	3.13	1.14	1	5
대기질 및 미세먼지	103	2.87	0.97	1	5
소음	103	2.90	1.26	1	5
청결도	103	3.08	1.08	1	5
자연재해 안전성	103	3.68	1.04	1	5
범죄위험 안전성	103	3.84	1.03	1	5
교통사고 안전성	103	3.50	0.95	1	5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성	103	3.42	0.92	1	5
감염병 안전성	103	3.24	1.03	1	5

성별에 따른 생활권 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여성(3.61점)이 남성(3.33점)보다 높았다.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은 환경 요소는 남성은 건물 노후도(2.5점), 여성은 이웃과 관계 형성에 도움(2.7점)으로 도출되어 남성 집단은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여성 집단은 관계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집단에서 만족도 평균이 더 높은 환경 요소는 자연재해 안전성(3.8점)3.6점)과 범죄위험 안전성(4.1점)3.7점)으로 확인되었으며, 범죄위험 안전성 만족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즉 생활권 내 안전성 측면에서 여성 집단의 만족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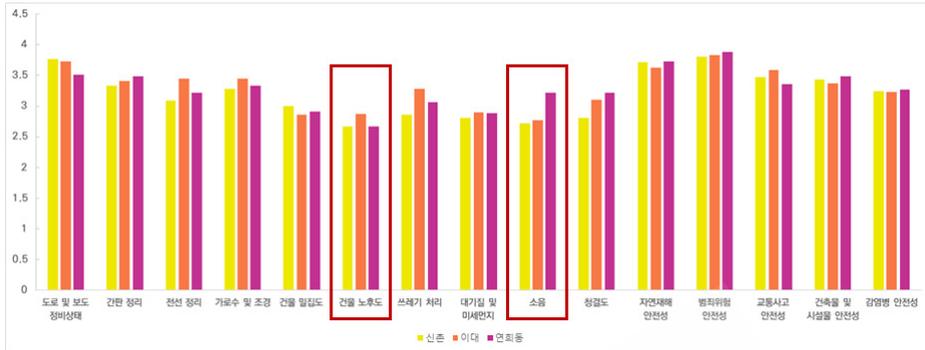
[그림 3-21] 성별 생활권 환경 만족도

연령에 따른 생활권 환경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19~24세(3.62점), 25~29세(3.45점), 30~34세(3.28점) 순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생활권 환경 만족도가 높았다. 19~24세와 30~34세는 편의시설 접근성(4.3점, 4.0점) 만족도가 높고, 25~29세는 편의시설 다양성(4.1점) 만족도가 높았다.



[그림 3-22] 연령별 생활권 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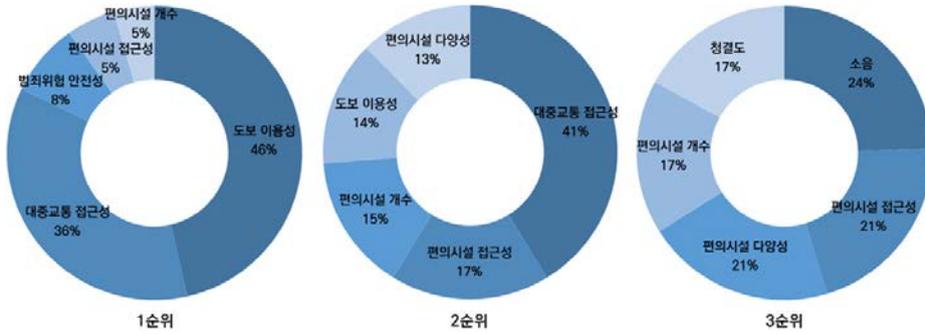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신촌과 이대는 3.5점, 연희동은 3.4점으로 연희동의 생활권 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만족도가 가장 낮은 환경 요소의 경우 신촌은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2.4점), 이대는 소음(2.8점)이었으며, 세 집단 모두 건물 노후도(2.7점, 2.9점, 2.7점)를 꼽았다.



[그림 3-23] 거주지별 생활권 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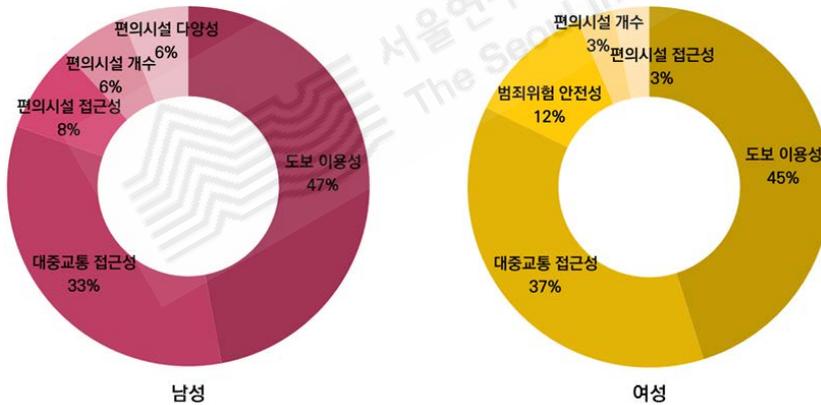
4) 생활권 환경 중요 요소

생활권 환경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응답한 결과, 신촌생활권 거주 청년들은 생활권 내 이동성과 편의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의 경우 도로 이용성(46%)과 대중교통 접근성(36%)이 약 80%를, 2순위에서도 대중교통 접근성(41%)의 비율이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여 생활권 환경에 있어 이동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범죄위험 안전성 항목의 경우 그 비중은 8%로 작지만, 1순위 항목에 포함되어 생활권 내 치안이 주요 고려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와 3순위 항목은 대부분 편의시설 관련 항목으로 접근성, 개수, 다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3순위에는 소음(24%), 청결도(17%) 등 환경적 요소의 비율이 높게 집계되었다.



[그림 3-24] 생활권 환경 중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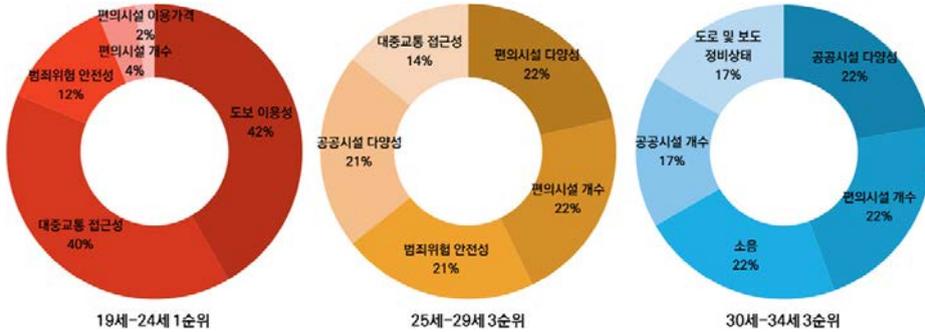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생활권 환경 중요 요소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도보 이용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범죄위험 안전성(12%)이 1순위 항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생활권 내 치안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두 집단 모두 편의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남성 집단은 시설의 다양성 측면을, 여성 집단은 접근성 측면을 중시하였다.



[그림 3-25] 성별 생활권 환경 중요 요소(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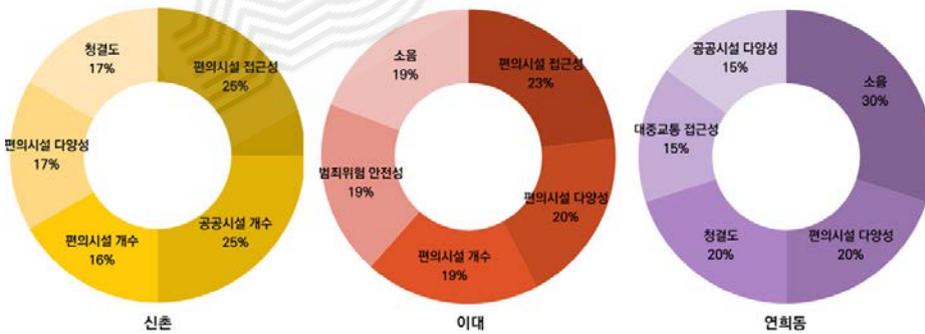
연령에 따른 생활권 환경 중요 요소에서 특징적인 것은 먼저 19세~24세에서 1순위 항목으로 편의시설의 이용가격을 꼽았다는 점이다. 해당 연령층은 학생 신분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가격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5~29세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범죄위험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30~34세의 3순

위 항목은 공공시설 및 도로 등 공공 인프라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다른 연령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림 3-26] 연령별 생활권 환경 중요 요소(1순위, 3순위)

거주지에 따른 생활권 환경 중요 요소의 3순위 비율을 살펴보면, 신촌 거주 집단과 이대 거주 집단은 편의시설 접근성(25%, 23%)을, 연희동 거주 집단은 소음(30%)을 생활권 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특히 신촌과 연희동 거주 집단의 경우 3순위에서 청결도(17%, 20%)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이대 거주 집단의 경우 범죄위험 안전성(1순위-12%, 3순위-19%)을 우선순위로 인식하였다.



[그림 3-27] 거주별 생활권 환경 중요 요소(3순위)

5) 생활권 환경 필요 요소

생활권 환경 필요 요소는 응답자가 인식한 생활권 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장소, 건물, 서비스 등을 조사한 것으로 다양한 응답 내용을 13개로 군집하여 분석하였다.

[표 3-11] 생활권 환경 필요 요소 군집화

생활권 환경 필요 요소	빈도
생활밀착형 시설	편의점, 다이소, 올리브영, 베이커리, 빨래방, 병원, 24시간 프린트카페, 미용실, 커뮤니티시설, 주민센터, 아트박스, 특화거리, 파출소, 스테디룸
마트	대형마트, 백화점
음식점	다양한 맛집,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샌드위치 전문점, 베스킨라빈스
카페	24시간 카페, 가성비 카페
문화시설	서점, 영화관, 노래방, 굿즈 판매점, 공연장
배송서비스	새벽배송, 로켓배송, 당일배송, 음식배달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운동장
대중교통	배차간격 단축, 노선 확대, 정류장 확충
공원 및 녹지	근린공원, 산책로, 수변공간
주차장	공공주차장, 건물 지하주차장
도서관	
환경개선	쓰레기처리 개선, 소음관리, 청결도 유지, 주차자 관리, 가로정비, 흡연부스 설치
학교 및 직장	

신촌생활권 거주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활밀착형 시설(26.0%)이었다. 편의점, 다이소, 올리브영 등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점과 24시간 프린트카페, 빨래방, 스테디룸 등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았다. 2순위는 마트(12.2%)로, 생활밀착형 시설에서 필요한 물건을 바로 구매하고자 하였다면 마트에서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향유하고 여가의 기능까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3순위는 문화시설(9.5%), 4순위와 6순위는 각각 카페(8.4%), 음식점(7.3%)이었다. 청년들은 주거지 인근에서 독서나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희망하였으며, 카페는 운영시간이 길고 가격 부담이 적은 점포를 선호하였고 음식점의 경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샌드위치 전문점과 같이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음식점과 다양한 메뉴를 보유한 특색있는 맛집에 대한 수요가 공존하였다. 5순위는 공원 및 녹지(8.0%)로, 산책하면서 환기하고 녹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에 관한 요구도 많은 편이었다.

[표 3-12] 생활권 환경 필요 요소

순위	생활권 환경 필요 요소	빈도	비율
1	생활밀착형 시설	68	26.0%
2	마트	32	12.2%
3	문화시설	25	9.5%
4	카페	22	8.4%
5	공원 및 녹지	21	8.0%
6	음식점	19	7.3%
7	배송서비스	18	6.9%
8	체육시설	18	6.9%
9	대중교통	14	5.3%
10	도서관	14	5.3%
11	학교 및 직장	4	1.5%
12	환경개선	4	1.5%
13	주차장	3	1.1%



5_정책 인지 및 중요도

1) 2030 서울생활권계획 인지 여부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정책에 대하여 신촌 거주 청년들의 인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생활권계획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7.5%,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82.5%로 대부분 응답자가 생활권계획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3-13] 정책 인지 여부

측정항목		빈도(명)	비율(%)
정책 인지 여부	예	18	17.5
	아니오	85	82.5

연령에 따른 정책 인지 여부 간의 관계를 교차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정 결과 Pearson 카이제곱 통계량은 유의수준 5%에서 연령에 따른 정책 인지 여부의 비율 구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4세 집단의 경우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6.1%)가 그렇지 않은 경우(93.9%)보다 87.8% 낮고, 25~29세 집단의 경우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31%)가 그렇지 않은 경우(69%)보다 38% 더 낮게 나타났다. 30~34세 집단의 경우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24%)가 그렇지 않은 경우(76%)보다 32% 더 낮게 확인되었다. 성별과 거주지에 따른 직주 일치 여부의 비율 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연령별 정책 인지 여부 교차분석 결과

측정항목		정책 인지 여부		합계	Pearson 카이제곱(p)
		예	아니오		
연령별	19~24세	3 (6.10%)	46 (93.90%)	49 (100.0%)	8.814 (0.012*)
	25~29세	9 (31.00%)	20 (69.00%)	29 (100.0%)	
	30~34세	6 (24.00%)	19 (76.00%)	25 (100.0%)	
전체		18 (17.50%)	85 (82.50%)	103 (100.0%)	

2) 신촌생활권 지역발전구상 정책 중요도

신촌생활권 지역발전구상 정책 중요도는 최솟값 1에서 최댓값 5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76으로 나타났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지역발전구상 6(청년인구를 위한 주거 및 일자리 지원, 4.26점)이며, 다음은 지역발전구상 8(공공시설을 활용한 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기회 확대, 3.99점)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발전구상 7(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홍보 및 지원, 2.98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갖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표 3-15] 지역발전구상 정책 중요도

측정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지역발전구상 1 이대·신촌역 청년창업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103	3.90	1.10	1	5
지역발전구상 2 연희가로 지역문화 자원 특성 강화	103	3.57	0.97	1	5
지역발전구상 3 대학과 연계한 문화산업 기반조성	103	3.82	0.98	1	5
지역발전구상 4 저층 주거지 기반시설 정비·개량 및 공급	103	3.93	0.90	1	5
지역발전구상 5 정비구역 및 해제 지역 계획적 관리	103	3.64	0.94	1	5
지역발전구상 6 청년인구를 위한 주거 및 일자리 지원	103	4.26	0.89	1	5
지역발전구상 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홍보 및 지원	103	2.98	1.12	1	5
지역발전구상 8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기회 확대	103	3.99	0.90	2	5

성별에 따른 지역발전구상 정책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여성 평균(3.9점)이 남성 평균(3.6점)보다 높았다. 두 집단 모두 청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지 정비·개량, 문화 기회 확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지역발전구상 정책 중요도는 19~24세(4.0점), 25~29세(3.7점), 30~34세(3.5점) 순으로 나타났다. 19~24세는 문화 기회 확대 정책, 25~29세는 주거지 정비·개량 정책, 30~34세는 청년창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거주지에 따른 지역발전구상 정책 중요도는 연희동(3.8점), 이대(3.8점), 신촌(3.7점) 순

으로 도출되었다. 신촌 거주 집단의 경우 청년창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이대는 문화 기회 확대 정책, 연희동은 주거지 정비·개량 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신촌생활권 공간관리지침 정책 중요도

신촌생활권 공간관리지침 정책 중요도는 최솟값 1에서 최댓값 5이고, 전체 평균은 3.91로 나타났다.

[표 3-16] 공간관리지침 정책 중요도

측정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중심지	공간관리지침 1 대학자원 및 지역 상권 연계를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103	4.01	0.96	1	5
	공간관리지침 2 공원주변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강화 및 문화활동 유치	103	4.13	0.76	2	5
	공간관리지침 3 자연환경과 연계한 주거지 관리	103	4.07	0.82	1	5
특성주거지	공간관리지침 4 공동근린공원 및 안산 보행 접근성 확보	103	3.90	0.92	1	5
	공간관리지침 5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 보전 및 친환경 건축 유도	103	3.70	0.98	1	5
	공간관리지침 6 연세대-이화여대 인근 주거환경 개선	103	4.28	0.76	2	5
경관	공간관리지침 7 주변 산과 저층 주거지와 조화로운 경관 조성 유도	103	3.79	0.96	1	5
	공간관리지침 8 홍제천 주변 경관 관리 및 접근성 향상 유도	103	3.82	0.96	1	5
	공간관리지침 9 특화거리 통일감 확보 및 보행 활성화 유도	103	4.03	1.04	1	5
생활서비스	공간관리지침 10 주차장 우선 공급	103	3.75	1.03	1	5
	공간관리지침 11 도서관 우선 공급	103	3.61	1.23	1	5
	공간관리지침 12 공공체육시설 우선 공급	103	3.83	0.97	1	5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공간관리지침 6(연세대-이화여대 인근 주거환경 개선, 4.28점)이며, 이어서 공간관리지침 2(공원주변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강화 및 문화활동 유치, 4.13점), 공간관리지침 3(자연환경과 연계한 주거지 관리, 4.07점)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공간관리지침 11(도서관 우선 공급, 3.61점)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갖는 정책이며, 공간관리지침 5(연희동 일대 단독주택 보전 및 친환경 건축 유도, 3.7점), 공간관리지침 10(주차장 우선 공급, 3.75)도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공간관리지침 정책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여성 평균(4.0점)이 남성 평균(3.8점)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 경관 정책의 중요도가 높았으나, 여성은 중심지와 특성주거지 정책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도서관 우선 공급을, 여성은 주차장 우선 공급 정책의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하였다.

연령에 따른 공간관리지침 정책 중요도는 19~24세(4.1점), 25~29세(3.9점), 30~34세(3.6점) 순으로 도출되었다. 19~24세는 중심지 정책, 25~29세는 자연환경과 경관에 대한 정책, 30~34세는 생활권 환경 및 시설 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지에 따른 공간관리지침 정책 중요도는 이대(4.0점)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촌(3.9점), 연희동(3.8점) 순이었다. 신촌과 이대의 경우 중심지에 관한 공간관리지침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희동은 공원 및 자연환경 정책을 중요하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생활권계획 정책 수요

생활권계획 정책 수요는 응답자가 인식한 생활권계획에 추가하고 싶은 시설이나 서비스, 정책을 조사한 것으로 세부 응답 내용을 11개로 군집하여 분석하였다. 생활권계획과 관련한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체육시설과 환경개선이 가장 큰 비중(15.1%)을 차지하였다. 배드민턴장, 탁구대, 자전거 도로 등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경관관리, 청결 유지, 공사소음 완화 등 정온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았다. 3순위는 쓰레기처리 개선과 지원시설 및 제도(14.5%)로, 1순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쓰레기처리 개선의 경우 수거 빈도 증가를 위한 의견이 많았고 쓰레기통, 음식물 처리시설, 분리수거시설을 비롯한 시설의 확충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지원시설 및 제도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일자리 지원부터 주거지원, 마음건강지원, 반려견 견주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서 5순위는 가로등 설치(11.2%)로 나타났으며, 세부 지역으로는 원룸촌, 골목길, 상권이 차례로 언급되었다.

[표 3-17] 생활권계획 정책 수요 군집화

생활권계획 정책 수요	세부내용
쓰레기처리 개선	쓰레기 수거 빈도 증가, 쓰레기통 설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분리수거시설
공원 및 녹지	산책로, 수변공간, 휴게시설, 벤치
환경개선	경관개선, 청결유지, 가로정비, 배수로 정비, 상하수도 정비, 악취 예방, 공사시간 제한, 공사소음 완화, 금연구역 관리, 불법흡연 단속, 가로수 정비
지원시설 및 제도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청년 주거지원, 공공기숙사 설립, 공공임대 생활주택, 비대면 생활지원, 창업-미팅공간 확충, 마음건강지원, 커뮤니티시설, 노후건물 보수지원, 반려견 견주 교육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탁구대, 자전거 도로
가로등 설치	원룸촌 가로등 설치
상권 정비	상권연계 강화, 특화거리 조성, 편의시설
교통시스템	대중교통지구 유지, 도로 및 보도 확대, N버스 확대, 보차분리, 차도 정비, 배차간격 축소, 육교 설치, 보행자도로 확대, 보스노선 확충, 차 없는 거리 교통안내
안전 제고	안전 정책 마련, 원룸촌 치안강화, 오토바이 운행 단속
주차	주차장 확충, 불법주차 예방
문화시설	도서관, 중고서점

[표 3-18] 생활권계획 정책 수요

순위	생활권 환경 필요 요소	빈도	비율
1	체육시설	23	15.1%
2	환경개선	23	15.1%
3	쓰레기처리 개선	22	14.5%
4	지원시설 및 제도	22	14.5%
5	가로등 설치	17	11.2%
6	공원 및 녹지	14	9.2%
7	교통시스템	11	7.2%
8	문화시설	8	5.3%
9	상권 정비	4	2.6%
10	안전 제고	4	2.6%
11	주차	4	2.6%

생활권 관련 정책 수요에 대한 응답 결과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가로등 설치(15.1%)를 2순위로 꼽아 안전과 치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30~34세의 경우 다른 연령 계층과 달리 쓰레기처리 개선과 가로등 설치 대신 지원시설 및 제도(28.9%)가 1순위를, 상권정비(10.5%)가 3순위를 차지하여 공공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원시설 및 제도는 19~24세와 25~29세에서 각각 6순위와 7순위에 위치하였고, 상권정비는 11순위와 10순위에 위치하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별 응답 결과는 집단 간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신촌의 경우 쓰레기처리 개선(32.3%)이 1순위를 차지하였는데 1순위와 나머지 항목들의 격차가 다른 거주지와 비교하여 압도적이었다. 이어지는 2순위도 환경개선(12.9%)이 꼽히는 등 청결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대에서는 지원시설 및 제도와 체육 시설(16.7%)이 1순위, 공원 및 녹지와 환경개선(11.5%)이 2순위에 위치하여 정책적 지원과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희동은 신촌, 이대의 선호가 혼합된 모습이며, 밀집 주거지역인만큼 가로등 설치(16.3%)가 2순위로 상위권에 해당하였고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

[표 3-19] 거주지별 생활권계획 정책 수요

순위	신촌		이대		연희동	
	필요 요소	비율	필요 요소	비율	필요 요소	비율
1	쓰레기처리 개선	32.3%	지원시설 및 제도	16.7%	환경개선	23.3%
2	환경개선	12.9%	체육시설	16.7%	가로등 설치	16.3%
3	가로등 설치	9.7%	공원 및 녹지	11.5%	체육시설	16.3%
4	공원 및 녹지	9.7%	환경개선	11.5%	지원시설 및 제도	14.0%
5	교통시스템	9.7%	쓰레기처리 개선	10.3%	교통시스템	9.3%
6	지원시설 및 제도	9.7%	가로등 설치	9.0%	쓰레기처리 개선	9.3%
7	체육시설	9.7%	문화시설	7.7%	공원 및 녹지	4.7%
8	안전 제고	3.2%	교통시스템	5.1%	문화시설	4.7%
9	주차	3.2%	상권 정비	5.1%	주차	2.3%
10	문화시설	0.0%	안전 제고	3.8%	상권 정비	0.0%
11	상권 정비	0.0%	주차	2.6%	안전 제고	0.0%

5) 정책·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

생활권에 대한 정책·행정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와 신뢰도 모두 최솟값 1점에서 최댓값 5점이고, 만족도는 평균 3.47점, 신뢰도는 평균 3.39점으로 도출되었다.

[표 3-20] 정책·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책·행정서비스 만족도	103	3.47	0.83	1	5
정책·행정서비스 신뢰도	103	3.39	0.82	1	5

6_관계 및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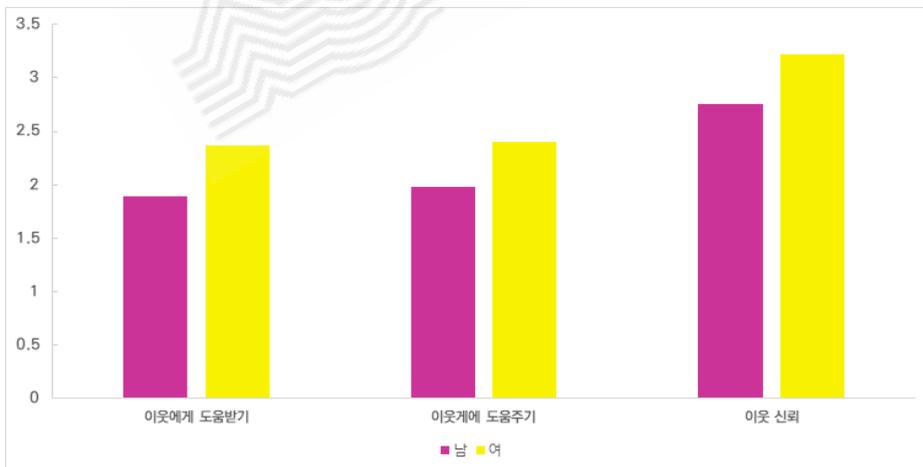
1) 생활권 내 이웃과의 관계

생활권 내 이웃과의 관계는 최솟값 1에서 최댓값 5로 구성되며,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정도의 경우 2.16점,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는 2.21점, 이웃 신뢰는 3.02점으로 나타났다.

[표 3-21] 생활권 내 이웃과의 관계

측정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이웃에게 도움받기	103	2.16	1.27	1	5
이웃에게 도움주기	103	2.21	1.22	1	5
이웃 신뢰	103	3.02	1.13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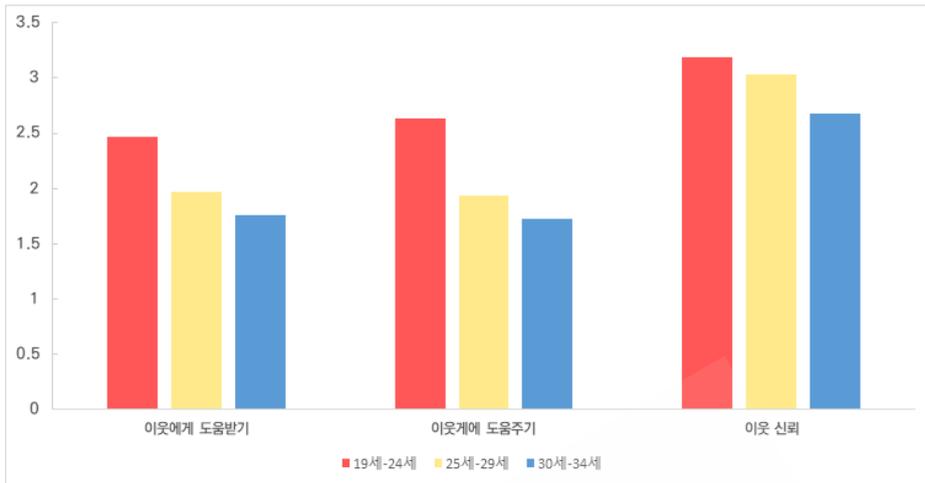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생활권 내 이웃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정도의 경우 남성 집단 1.9점, 여성 집단 2.4점,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는 각각 2.0점, 2.4점, 이웃 신뢰는 각각 2.8점, 3.2점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세 항목 모두에서 여성 집단의 평균이 남성 집단보다 높게 확인되었으며, 특히 이웃 신뢰 항목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⁸⁾



[그림 3-28] 성별 생활권 내 이웃과의 관계

8) 성별 이웃 신뢰에 대한 t-test 결과, t값 -2.125, 유의확률 0.0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에 따른 생활권 내 이웃과의 관계 항목 모두 19~24세, 25~29세, 30~34세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도출되었다.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정도와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 항목에 대한 세 집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⁹⁾



[그림 3-2] 연령별 생활권 내 이웃과의 관계

거주지에 따른 생활권 내 이웃과의 관계 항목 모두 이대, 연희동, 신촌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생활권 내 이웃 교류 용이성

생활권 내 이웃 교류 용이성은 생활권 환경이 이웃과 교류하기에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최솟값이 1점, 최댓값이 5점이고 평균은 2.83점으로 도출되었다.

[표 3-22] 생활권 내 이웃 교류 용이성

측정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이웃 교류 용이성	103	2.83	1.19	1	5

생활권 내 이웃과의 교류가 용이한지에 대한 응답의 이유는 크게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⁹⁾ 연령별 이웃에게 도움받기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값 3.142, 유의확률 0.0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이웃에게 도움주기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값 6.334, 유의확률 0.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3] 생활권 내 이웃 교류 용이성 사유 군집화

긍정 사유	부정 사유	
	키워드	세부사항
친근한 분위기	개인적인 분위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음
관련 프로그램 다수	일시적 거주	주변에 안면있는 사람이 없음, 서로 바쁨
인근에 친구가 거주	교류할 기회 없음	
	교류할 이유 없음	
다양한 콘텐츠	교류 가능 시설 없음	아이들 위주의 커뮤니티시설
도보 연결성 우수	교류할 환경 미비	주변에 이웃 자체가 적음, 1인가구 다수, 커뮤니티 부재, 고령자 및 외국인 다수 거주, 층간소음으로 관계 악화, 주택 대신 상가 입점
교류 가능 시설 다수	관심도가 낮음	
	안전 우려	범죄 및 감염병

성별에 따른 이웃 교류 용이성은 남성 2.6점, 여성 3.0점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이웃과 교류하기에 좋다고 응답하였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부정적 사유로 교류 가능 시설의 부재(22.0%), 교류할 기회의 부재(18.0%), 교류환경 미비(14.0%)를 꼽았다. 긍정적 사유에서는 인근에 거주하는 친구(8.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사유에서 교류할 기회의 부재(16.9%), 교류환경 미비(15.5%), 교류 가능 시설의 부재(12.7%)가 상위 순위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사유에서는 인근에 거주하는 친구(8.5%) 외에 교류 가능한 시설(11.2%), 우수한 도보 연결성(9.8%)을 많이 언급하여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이웃 교류 용이성은 19~24세(3.0점)가 이웃 교류에 가장 좋다고 인식하였으며, 25~29세(2.8점), 30~34세(2.5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부정적 측면에서 교류할 기회의 부재, 교류 가능 시설의 부재, 교류환경 미비가 많이 언급되었다. 19~24세의 경우 교류할 기회의 부재(20.0%)가 1순위를 차지하였고 25~29세에서는 교류환경 미비(25.0%)가 1순위, 교류할 기회의 부재(22.2%)가 2순위로 꼽혔다. 30~34세는 교류 가능 시설의 부재(23.3%)와 교류할 이유의 부재(13.3%), 낮은 관심도(13.3%) 항목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특히 높게 나타나 교류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커뮤니티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긍정적 사유로는 교류 가능 시설과 인근에 거주하는 친구의 비중이 컸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친구의 경우 19~24세의 응답률이 압도적이었다.

거주지에 따른 이웃 교류 용이성은 이대(3.0점), 연희동(2.8점) 신촌(2.5점) 순으로 도출되어 이대에서 이웃 교류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전 결과와 유사하게 부정적 사유로 교류할 기회의 부재, 교류 가능 시설의 부재, 교류환경 미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신촌에서는 낮은 관심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사유의 경우 교류 가능 시설과 인근에 거주하는 친구가 1순위를 차지하였는데 두 항목 모두 이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3) 생활권 소속감

생활권 소속감은 응답자가 생활권에 얼마나 소속되어 있는지를 측정한 지표로 -5점에서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0.58점으로 도출되었다.

[표 3-24] 생활권 소속감

측정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소속감	103	0.58	3.34	-5	5

성별에 따른 소속감은 남성 -0.3점, 여성 1.2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권에서 소속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소속감 평균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¹⁰⁾



[그림 3-30] 성별 생활권 소속감

10) 성별 소속감에 대한 t-test 결과, t값 -2.286, 유의확률 0.0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에 따른 소속감은 19~24세가 1.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30~34세 -0.2점, 25~29세 -0.3점 순이었다. 세 집단의 소속감 평균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¹¹⁾



[그림 3-31] 연령별 생활권 소속감

주거지에 따른 소속감은 연희동(0.94점), 이대(0.50점), 신촌(0.19점)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3-32] 거주지별 생활권 소속감

11) 연령별 소속감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값 3.875, 유의확률 0.0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7. 소결

본 장에서는 신촌생활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생활권 인식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여성이 56.3%로 많고, 19~24세 연령이 4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공간분석을 통해 도출된 거주지역은 신촌 거주 집단, 이대 거주 집단, 연희동 거주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생활권의 범위 영역에서는 인식적 생활권의 둘레와 면적 모두 계획적 생활권보다 작았으며, 형태복잡도는 평균 4.9로 계획적 생활권에 비해 공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식적 생활권과 계획적 생활권의 중첩률은 약 71%이고, 가장 많이 중첩된 지역은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정문으로 이어지는 대학상권 인근이었다. 평균적으로 집에서부터 20분 거리, 버스 정거장 6개, 지하철 정거장 4개까지를 생활권의 범위로 인식하였다. 생활권 범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통근·통학 지역이었으며, 응답자의 거주지와 직장 또는 학교의 행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는 전체 중 33%를 차지하였다.

생활권 환경 만족도 영역의 경우,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3.1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생활권 내 이용시설 중 편의점,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활권 환경 만족도는 평균 3.48점이었고, 이동성과 편의시설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생활권 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의점, 빨래방, 병원 등 생활밀착형 시설이었다. 정책인지 및 중요도 영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17.5%만이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알고 있었다. 신촌생활권 계획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지역발전구상) 청년인구를 위한 주거 및 일자리 지원’과 ‘(공간관리지침) 연세대-이화여대 인근 주거환경 개선’을 꼽았고, 추가하고 싶은 정책으로는 체육시설과 환경개선을 제시하였다. 생활권에 대한 정책·행정서비스의 만족도는 3.47점, 신뢰도는 3.39점으로 도출되었다.

관계 및 커뮤니티 영역에서는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정도의 경우 2.16점,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 2.21점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이웃 신뢰는 3.02점으로 높았다. 생활권 내 이웃 교류 용이성은 평균 2.83점, 생활권 소속감은 평균 0.58점으로 낮았다.

기초분석 결과 본 장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촌생활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실제 인식하는 생활권은 계획적 생활권의 범위보다 훨씬 작아 계획의 범위 조정 혹은 세부지역별 콘텐츠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신촌생활권은 신촌동과 연희동 두 개의동이 합쳐진 범위이지만, 신촌생활권 거주 청년들의 68%는 생활권의 범위를 본인이 거주하는 행정동의 면적보다도 작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행정동

면적의 50% 미만으로 매우 작게 인식하는 경우가 전체의 40%에 해당하여 계획적 생활권의 범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청년들의 생활권 인식 및 만족도는 성별, 연령별, 주거지별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을 단순히 다른 연령 집단과 구별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의 차이를 인식하고 반영하여 세밀한 정책 도입 시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생활권 환경 만족도, 정책 만족도, 소속감 등 대부분 영역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범죄 안전성 측면의 만족도는 유일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권 환경 중요도에서도 범죄 안전성을 높은 순위로 꼽아 생활권 내 치안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 건물 밀집도, 건물 노후도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19~24세 집단의 경우 상업가로 등 중심지 위주의 생활권계획과 편의시설 이용가격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30~34세 집단은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공공 주도의 시설 및 인프라에 관심이 높아 공공시설의 개수 및 다양성, 도로 및 보도 정비상태 등을 생활권 환경의 중요 요소로 언급하였다. 더불어 생활권계획을 통한 공공 체육시설의 우선 공급을 희망 정책으로 꼽았다. 주거지별 차이를 살펴보면, 신촌과 이화 주거지 인근에 지하철역이 위치하여 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가도가 형성되어 있지만 연희동의 경우 버스 위주의 대중교통 이용과 전통적 주거지의 특성을 보인 곳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연희동 거주 집단의 대중교통 및 다양한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권 환경 만족도와 생활권 환경 중요도 및 정책 수요 사이에 매칭이 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하였다. 주차시설의 경우 청년 대부분이 만족도가 낮은 시설로 응답하였으나, 정책의 중요도 측면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축에 속했다. 또 소음은 신촌 거주 집단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생활권 환경 중요 요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당사자의 정책 수요가 정책 과정 및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단기적·가시적 관점으로 인해 편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한 데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에서는 주민, 대표단에게 다양한 정책사례 및 시행 가능한 사업들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는 동시에 현황과 만족도에 기반하여 객관적, 장기적 차원에서 공간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04. 생활권 환경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1_분석모형

1)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생활권 환경의 부문별 만족도 요인추출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환경의 세부 부문별 청년 만족도 측정변수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여 핵심 요인으로 축소하고 이를 최종 실증모형에 반영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생활권 환경에 대해 이동성, 공공성, 편의성, 관계성, 물리적 인프라, 환경성, 안전성의 7개 부문, 총 28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변수의 수가 많고 표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핵심 요인으로 축약함으로써 통계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측정변수는 청년들의 선호와 라이프스타일, 선행연구(서원석, 2013; 권세연·박환용, 2014; 김세정, 2014; 김수영 외, 2017; 김현민·신현주, 2018; 박효숙·이경환, 2018; 이호연, 2018; 원재웅·이재수, 2018; 이경영·정문기, 2019; 윤은영, 2020; 지갑성, 2020; 윤소영; 이현정·박상우, 2022)를 바탕으로 크게 이동성, 공공성, 편의성, 관계성, 물리적 인프라, 환경성, 안전성으로 구성하였다. 시설의 경우 그 개수와 다양성, 접근성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였고 이동성은 도보와 대중교통을, 환경성은 폐기물 처리와 대기질, 소음 등을 포함하였다. 또 안전성에서는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범죄와 감염병을 비롯한 사회재난의 영역을 반영하였다. 요인 수는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선정하였고 회전방법으로는 직각회전 중 Varimax 방법을 적용하였다. 더불어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표 4-1] 생활권 환경의 부문별 만족도 측정변수

구분	영역	세부항목
1	이동성	도보 이용성
2		대중교통 접근성
3	공공성 (공원, 주차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 개수
4		공공시설 다양성
5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6		공공시설 접근성
7	편의성 (식당, 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	편의시설 개수
8		편의시설 다양성
9		편의시설 이용가격
10		편의시설 유명도
11		편의시설 접근성
12	관계성	가족과 함께 이용 가능
13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
14	물리적 인프라	도로 및 보도 정비상태
15		간판 정리
16		전선 정리
17		가로수 및 조경
18		건물 밀집도
19	건물 노후도	
20	환경성	쓰레기 처리
21		대기질 및 미세먼지
22		소음
23	청결도	
24	안전성	자연재해 안전성
25		범죄위험 안전성
26		교통사고 안전성
27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성
28		감염병 안전성

2) 순서형 로짓모형을 통한 생활권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전반적인 생활권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 생활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이다. 독립변수는 크게 부문별 만족도 요인, 개인 특성, 주거 특성으로 나누어 총 15개 변수를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4-2] 실증모형의 변수 구성

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종속변수	전반적 생활권 만족도	매우 불만족 = -5 ~ 매우 만족 = +5	
독립 변수	부문별 만족도 요인	환경성 및 안전성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요인점수(Factor Score)
		물리적 인프라	
		공공성	
		편의성	
		도보 이동성	
		물가 및 공동체 특화	
	개인특성	연령	만 19-24세 = 1, 만 25-29세 = 2, 만 30-34세 = 3
		성별	남성 = 0, 여성 = 1
		월평균 소득	0원 = 1, 0~100만 원 미만 = 2, 100~200만 원 미만 = 3, 200~300만 원 미만 = 4, 300만 원 이상 = 5
		이웃관계	이웃관계 측정문항의 평균 1. 도움을 받는 편이다. 2. 도움을 주는 편이다. 3. 이웃은 신뢰할만한 사람들이다.
		인식생활권의 형태복잡도	인식생활권의 둘레 / 면적
	주거특성	월세	그 밖의 점유형태 = 0, 월세 = 1
		1인가구	그 외 = 0, 1인가구 = 1
거주기간		1년 미만 = 1, 1~2년 미만 = 2, 2~5년 미만 = 3, 5년 이상 = 4	
직주근접		그 외 = 0, 주거지와 직장이 같은 동인 경우 = 1	

먼저, 부문별 만족도 요인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추출된 요인들을 기준으로 그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이용하였다. 요인추출의 결과와 명명은 이어지는 ‘2_분석 결과’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개인 특성에서는 연령, 성별, 월평균 소득, 이웃관계, 인식생활권의 형태복잡도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전체 범위를 5세 단위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고,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입력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단위로 0원부터 300만 원 이상까지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웃관계는 관련 측정 문항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여기서 관련 측정 문항은 ‘이웃의 도움을 종종 받는 편이다.’, ‘이웃을 종종 도와주는 편이다.’, ‘이웃은 신뢰할만한 사람들이다.’에 대하여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들을 의미한다. 인식생활권의 형태복잡도는 응답자가 지도상에 표기한 생활권을 디지털라이징(digitizing)하여 둘레를 면적으로 나누는 값으로, 생활권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공간인식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형태복잡도 지수를 활

용하고 있다(서주환, 2002; 이상우·황순진, 2007; Jerry et al., 2020). 서주환 외(2002)의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 형태복잡도와 농촌경관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실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형태복잡도와 선호도에 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6개 항목¹²⁾에 대한 형태복잡도 중 경작지의 형태가 가장 단순하였으며, 식생이 가장 복잡하였다. 하늘, 경작지 등의 면적이 큰 항목은 형태가 복잡할수록 농촌경관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반면, 도로, 시설, 식생의 복잡도는 선호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특성은 월세 및 1인가구, 직주근접 여부와 거주기간으로 구성된다. 월세, 1인가구, 주거지와 직장이 같은 동(洞)인 경우를 각각 1로 입력하였다. 그리고 거주기간은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총 4단계로 구분하였다.



12) 농촌경관 사진을 바탕으로 경작지, 도로, 시설, 식생, 하늘, 하천의 6가지 물리적 요소에 대한 형태복잡도를 각각 측정하여 분석

2_분석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생활권 환경의 부문별 만족도 요인추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고유값(eigenvalue) 1을 초과하는 요인을 추출한 결과 총 6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아래 [표 4-3]은 요인별 적재값과 검정통계량을 보여준다. 요인1은 교통사고 안전성, 감염병 안전성, 범죄위험 안전성, 자연재해 안전성,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성, 소음, 청결도, 쓰레기 처리, 대기질 및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요인으로 생활권의 환경성 및 안전성을 나타낸다. 요인2는 간판 정리, 전선 정리, 도로 및 보도 정비상태, 건물 밀집도, 가로수 및 조경, 건물 노후도로 구성되며 물리적 인프라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요인3은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공공시설 개수, 공공시설 다양성, 공공시설 접근성을 포함하므로 공공성에 관한 것이다. 요인4는 편의시설 유명도, 편의시설 다양성, 편의시설 개수, 편의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가족과의 이용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요인으로 편의시설과 대중교통 등 편의성을 반영한 요인이다. 요인5는 도보 이용성 변수 단독으로 이루어진 요인이며, 생활권이 가장 작은 근린 단위인 만큼 보행만족도가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6은 편의시설 이용 가격과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변수를 포함하는 요인으로 주변 물가 및 공동체 특화를 보여주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KMO 측도는 0.811이며 각 측정항목의 요인적재값은 0.491~0.857의 분포로 나타났고 요인 지정시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변수들이 모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최종적인 분산 설명력은 67.054%이다.

주거환경 만족도 결정모형에서 부문별 만족도 요인을 반영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표 4-4]),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안전, 환경, 시설 접근성, 교통, 사회적 관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흔히 '동네'라고 일컬어지는 생활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도보 이동성(FAC5)과 정비상태(FAC2)가 구체화되어 나타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4-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류	요인별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특성
FAC1	교통사고 안전성	0.772	-0.022	0.142	0.103	0.058	0.143	환경성 및 안전성
	감염병 안전성	0.741	0.137	-0.031	0.271	-0.215	-0.110	
	소음	0.700	0.199	-0.029	-0.012	-0.002	0.135	
	청결도	0.697	0.440	-0.102	-0.033	0.031	0.160	
	범죄위험 안전성	0.696	0.151	0.047	-0.074	0.457	-0.126	
	자연재해 안전성	0.677	0.184	0.048	-0.036	0.439	0.047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성	0.674	0.414	0.258	0.241	-0.052	-0.056	
	쓰레기 처리	0.624	0.310	-0.033	0.109	-0.161	0.186	
FAC2	대기질 및 미세먼지	0.577	0.315	0.086	-0.108	-0.056	0.322	물리적 인프라
	간판 정리	0.212	0.857	-0.104	0.165	0.107	0.079	
	전선 정리	0.332	0.734	-0.081	0.184	0.006	0.106	
	도로 및 보도 정비상태	0.144	0.710	0.184	0.230	0.090	-0.011	
	건물 밀집도	0.306	0.708	0.227	-0.025	-0.033	0.058	
	가로수 및 조경	0.168	0.646	0.180	0.074	0.308	0.293	
FAC3	건물 노후도	0.521	0.578	0.268	-0.021	-0.053	0.038	공공성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0.075	0.168	0.848	0.188	0.076	0.124	
	공공시설 개수	0.031	0.096	0.840	0.302	0.074	-0.169	
	공공시설 다양성	-0.033	0.203	0.831	0.286	0.028	0.003	
FAC4	공공시설 접근성	0.155	-0.118	0.821	0.118	0.198	0.181	편의성
	편의시설 유명도	0.057	0.135	0.169	0.784	0.005	0.084	
	편의시설 다양성	-0.039	0.145	0.235	0.772	-0.043	0.082	
	편의시설 개수	-0.041	0.029	0.353	0.661	0.098	0.022	
	편의시설 접근성	0.030	-0.033	0.217	0.658	0.397	0.317	
	대중교통 접근성	0.083	-0.009	0.023	0.522	0.507	-0.175	
FAC5	가족과 함께 이용 가능	0.169	0.241	0.063	0.491	0.054	0.131	도보 이동성
	도보 이용성	-0.116	0.142	0.288	0.188	0.691	0.026	
FAC6	편의시설 이용가격	0.216	0.024	0.054	0.385	-0.057	0.644	물가 및 공동체 특화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	0.147	0.386	0.052	0.100	0.013	0.629	

Kaiser-Meyer-Olkin 측도: 0.81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0.000

분산설명(%): 67.054

굵은 글씨: 요인 적재값 > 0.5

[표 4-4] 탐색적 요인분석 선행연구

김세정(2014)	이호연(2018)	선행연구			본 연구
		신명철 외(2019)	민충근(2021)	임준홍(2021)	
사회적 요인	안전성	주택 안전 및 위생	물리적 환경	재해·안전	환경성 및 안전성
환경적 요인	편리성	주택 내부성능	자연적 환경	편의시설	물리적 인프라
안전요인	쾌적성	주택 쾌적성	사회적 환경	환경	공공성
경제적 요인	독립성	주거지 안전 및 환경		문화·관광·스포츠	편의성
문화적 요인	청년친화성	편의시설 및 교통 접근성			도보 이동성
		공공시설 접근성			물가 및 공동체 특화

2) 기초통계분석

청년들의 생활권 환경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4-5]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로 지정된 전반적 생활권 환경 만족도의 평균은 3.100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었다. 응답자의 56%가 여성이었고, 연령 변수의 평균은 1.770으로 20대 초·중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과반이었으며, 이웃관계 변수의 평균은 2.463으로 이웃과 도움을 주고받고 신뢰할만하다고 평가하는 정도가 보통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또 인식생활권의 형태복잡도는 표준편차가 모든 변수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생활권을 인식하는 구체성에 있어 개인차가 분명함을 알 수 있었다.

주거특성에서는 점유형태가 월세인 가구와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가 각각 63%, 62%를 차지하였고 거주기간은 2년 미만이 약 68%에 이를 만큼 짧은 편이었다. 그리고 학교 및 근무지와 거주지가 같은 동(洞)에 속하는 직주근접의 비율은 47.3%였는데 이는 거주기간과 마찬가지로 신촌생활권이 다수의 대학이 위치한 학생 위주의 생활권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만족도 요인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가 유사하게 형성되었다. 물리적 인프라 변수의 범위는 -2.105~2.537로 가장 좁은 반면, 도보 이동성 변수의 범위는 -3.556~3.176으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

[표 4-5] 기초통계 분석

구분	변수명	응답자(103)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전반적 생활권 만족도	3.100	1.347	-3	5	
독립 변수	부문별 만족도 요인	환경성 및 안전성	0.000	1.000	-2.712	2.033
		물리적 인프라	0.000	1.000	-2.105	2.537
		공공성	0.000	1.000	-2.847	2.612
		편의성	0.000	1.000	-2.984	1.823
		도보 이동성	0.000	1.000	-3.556	3.176
		물가 및 공동체 특화	0.000	1.000	-2.816	3.413
	개인특성	연령	1.770	0.819	1	3
		성별	0.560	0.498	0	1
		월평균 소득	2.640	1.392	1	5
		이웃관계	2.463	1.046	1	5
		인식생활권의 형태복잡도	4.912	2.476	1.250	15.370
	주거특성	월세	0.630	0.485	0	1
		1인가구	0.620	0.487	0	1
		거주기간	1.049	1.049	1	4
		직주근접	0.473	0.473	0	1

3) 순서형 로짓모형을 통한 생활권 환경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순서형 로짓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6]과 같다. 부문별 만족도 요인의 경우 우 환경성 및 안전성, 물리적 인프라, 공공성, 도보 이동성 요인이 전반적 생활권 만족도에 정(+)¹⁾의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공성과 도보 이동성의 계수가 크게 나타나 공원, 체육 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보행환경이 주요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편의성과 물가 및 공동체 특화 요인은 영향력이 작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개인 특성에서는 연령과 월평균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범죄위험, 자연재해를 비롯한 안전성 등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웃관계 변수는 정(+)¹⁾의 영향을 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인식생활권의 형태복잡도 변수는 유의한 정(+)¹⁾의 영향을 주었다. 즉 생활권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인식할수록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특색있는 거리 혹은 건물, 점포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거 특성에서는 월세 및 1인가구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거주 기간은 1년 미만의 짧은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주 초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 직주근접을 달성한 청년들의 생활권 환경 만족도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직주근접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문은혜, 2021) 이것이 생활권,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향후 청년 생활권을 계획·설계할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형적합도 지수는 Cox&Snell와 Nagelkerke가 각각 0.375, 0.393으로 산출되었으며, -2 Log Likelihood는 267.745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4-6]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변수명		B	S.E.	Wald	Odds Ratio
환경성 및 안전성		0.545***	0.201	7.348	1.725
물리적 인프라		0.477**	0.207	5.288	1.611
공공성		0.680***	0.210	10.433	1.974
편의성		0.319	0.228	1.965	1.376
도보 이동성		0.645***	0.219	8.710	1.906
물가 및 공동체 특화		-0.046	0.229	0.040	0.955
연령 (30~34세 대비)	19~24세	-0.410	0.725	0.319	0.664
	25~29세	0.403	0.672	0.361	1.496
성별		-0.860*	0.485	3.142	0.423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대비)	0원	-0.245	0.825	0.088	0.783
	0~100만 원 미만	0.209	0.825	0.064	1.232
	100~200만 원 미만	0.159	0.818	0.038	1.172
	200~300만 원 미만	-0.743	0.811	0.839	0.476
이웃관계		0.252	0.218	1.344	1.287
인식생활권의 형태복잡도		0.148*	0.087	2.850	1.160
월세		0.056	0.446	0.016	1.058
1인가구		-0.070	0.454	0.024	0.932
거주기간 (5년 이상 대비)	1년 미만	-1.483**	0.739	4.029	0.227
	1~2년 미만	-1.191	0.726	2.688	0.304
	2~5년 미만	-1.060	0.733	2.088	0.346
직주근접		1.006**	0.462	4.747	0.366

N = 103, -2 Log Likelihood = 267.745***, Cox&Snell = 0.375, Nagelkerke = 0.393

* p<0.1, ** p<0.05, ***p<0.01

3_소결

본 장에서는 신촌생활권 청년 거주자의 생활권 환경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총 28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생활권의 부문별 만족도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화하였다. 그 결과 환경성 및 안전성, 물리적 인프라, 공공성, 편의성, 도보 이동성, 물가 및 공동체 특화라는 6개의 핵심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어서 부문별 만족도 요인과 개인특성, 주거특성을 포함하는 순서형 로짓모형을 구축하고 어떤 변수가 전반적 생활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환경성 및 안전성, 물리적 인프라, 공공성, 도보 이동성, 인식생활권의 형태복잡도, 직주근접 여부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반면, 여성 해당 여부와 1년 미만의 짧은 거주기간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장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권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이 요구된다. 부문별 만족도 요인 중에서 환경성 및 안전성, 물리적 인프라, 공공성, 도보 이동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따라서 이를 정비·보완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설별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표 4-7), 자연환경과 공공기관, 커뮤니티시설, 공공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환경성,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가로등 시스템, 범죄 및 재난예방설계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지구단위계획을 제시하여 안전성과 물리적 인프라를 제고하여 여성들의 만족도 저하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표 4-7] 생활권 내 이용시설별 만족도 비교

순위	이용시설	만족도 평균	순위	이용시설	만족도 평균
1	편의점	4.66	9	미용실 및 뷰티샵	3.67
2	대중교통	4.39	10	공공기관	3.59
3	카페 및 베이커리	4.14	11	마트	3.54
4	음식점 및 호프	3.93	12	스포츠시설(헬스장, 요가 등)	3.49
5	의료시설	3.88	13	자연환경(공원, 녹지, 오픈스페이스)	3.36
6	백화점 및 쇼핑시설	3.86	14	커뮤니티시설	3.18
7	문화시설	3.8	15	공공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2.98
8	교육시설	3.78	16	주차시설	2.5

둘째, 이주 초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타 시·도에서 신규 전입한 20대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홍보물, 생활 물품으로 구성된 웰컴박스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생활권 단위에서 새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안내 책자를 배부하거나 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의 또래 친구를 연결해주는 제도 등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이 밀집하여 학생 거주자가 많은 신촌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신입생 교육 시 생활권에 대한 소개가 병행되도록 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생활권 적응 보조프로그램을 통해 전입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대학 학생회의 정책 효능감을 제고하고 상인들의 홍보 및 교류 기회를 확보하여 사회적 자본 확충이 기대된다.

셋째, 개성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세밀한 생활권 인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앞선 분석에서 인식생활권의 형태복잡도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생활권이 단순하게 숙식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그 안에서 즐기고, 활동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특색있는 거리, 건물, 점포를 확보하여 인식의 구체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05. 결론 및 정책제언

1_연구 요약

1) 생활권 인식 기초분석 결과

신촌생활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생활권 인식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 결과, 그들이 실제 인식하는 생활권은 계획적 생활권의 범위보다 훨씬 작았다. 신촌생활권은 신촌동과 연희동이 합쳐진 범위이지만, 거주 청년의 68%는 생활권의 범위를 본인이 거주하는 행정동의 면적보다도 작게 인식하였다. 특히 거주 행정동 면적의 50% 미만으로 매우 작게 인식하는 경우가 전체의 40%에 해당하여 계획적 생활권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 청년들의 생활권 인식 및 만족도는 성, 연령, 주거지에 따라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생활권 환경 만족도, 정책 만족도, 소속감 등 대부분 영역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범죄 안전성 측면의 만족도가 유일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권 환경 중요도에서도 범죄 안전성을 높은 순위로 꼽아 치안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건물 밀집도, 노후도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 연령별 차이에서는 19~24세 집단은 중심지 위주의 생활권계획과 편의시설 이용가격을 중시하였다. 30~34세 집단의 경우 공공 주도의 시설 및 인프라에 관심이 높아 공공시설의 개수 및 다양성, 도로 및 보도 정비상태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거지별 차이를 살펴보면, 버스 위주 대중교통과 전통적인 주거지 특성으로 인해 연희동 거주 집단의 대중교통 및 편의시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환경 만족도와 생활권 환경 중요도 및 정책 수요 사이에 일부 매칭이 되지 않는 항목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주차시설은 청년 대부분이 만족도가 낮은 시설로 응답하였는

데 정책의 중요도 측면에서 낮은 순위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소음은 신촌 거주 집단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었음에도 생활권 환경 중요 요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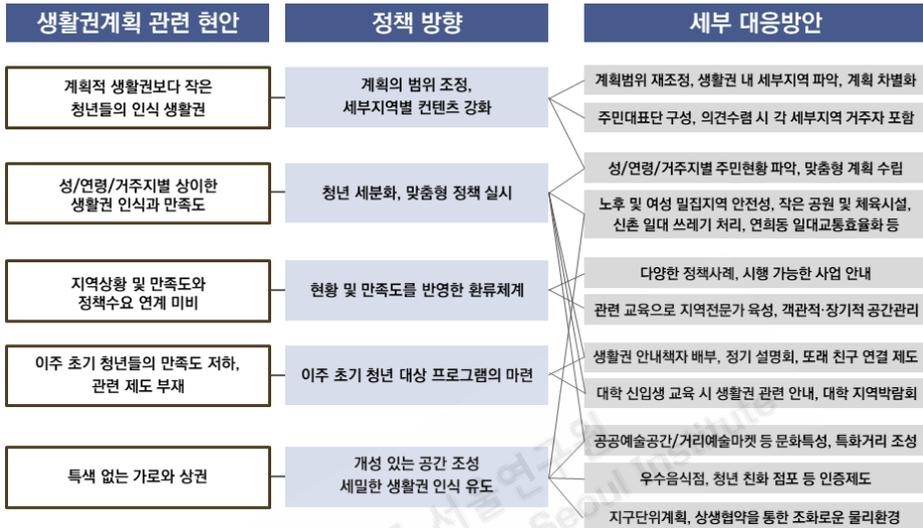
2) 생활권 환경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신촌생활권 청년 거주자의 생활권 환경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28개 문항으로 측정된 생활권의 부문별 만족도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구조화하였다. 그 결과 환경성 및 안전성, 물리적 인프라, 공공성, 편의성, 도보 이동성, 물가 및 공동체 특화라는 6개 핵심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어서 부문별 만족도 요인과 개인특성, 주거특성을 포함하는 순서형 로짓모형을 구축하고 어떤 변수가 전반적 생활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환경성 및 안전성, 물리적 인프라, 공공성, 도보 이동성, 인식 생활권의 형태복잡도, 직주근접 여부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반면, 여성 해당 여부와 1년 미만의 짧은 거주기간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_정책제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촌생활권 계획에 관한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신촌생활권계획 관련 현안 및 정책 대응

첫째, 신촌생활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생활권은 실제 계획적 생활권보다 작았다. 이는 2040 서울플랜에 따른 생활권계획 재정비에 있어 계획범위의 재조정을 검토하고, 세부 지역별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기초조사를 통해 지역적 성격이 유사한 생활권을 통합하거나, 생활권 내에서도 성격이 다른 세부지역을 구분하여 계획의 내용을 지역별로 차별화한다. 이 경우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거나 의견 수렴 시 각 생활권 하위지역의 거주자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청년집단 내에서도 성, 연령, 거주지에 따라 생활권 인식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다른 연령 집단과는 다른 청년집단을 위한 정책 수립과 더불어 세분된 청년집단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한다. 먼저 성, 연령, 거주지 등 주민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인구구성에 따른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청년들의 생활권 인식조사 결과, 신촌생활권 계획은 노후 주거지역 개선과 여성 밀집 지역 안전성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 서측 저층주거지 생활방법안전 대책 수립'이 생활권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데, 이를 필요 지역으로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가로등 설치, 어두운 담장 및 벽면 도색, CCTV 등 안전인프라 증설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범죄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CPTED 기법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또 자치방범대의 구성과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모범사례로 연세대 자치순찰대인 EAGLE GUARD를 꼽을 수 있다. EAGLE GUARD는 2012년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 시작하여 지금은 자치단체로 인준받아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치조직을 활용한 치안 유지방안은 생활권계획의 취지와도 부합할 것이다.



[그림 5-2] 연세대 서측 주거지 내 여성안심 귀갓길



[그림 5-3] 연세대 자치순찰대

그 밖에 집단별 생활환경 개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부문별 만족도 요인 중에서 환경성 및 안전성, 물리적 인프라, 공공성, 도보 이동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므로 이를 정비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수요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공원 및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신촌 일대 쓰레기 수거 빈도 증가와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신설되는 경전철과 연계한 연희동 일대 교통 효율화 방안 마련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현황이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정책 수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항목들이 관찰되었다. 이는 정책 과정 및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단기적·가시적 관점으로 인해 당사자의 정책수요가 편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공론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므로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현황 및 만족도를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공공에서는 주민들과 대표단에게 다양한 정책사례 및 시행 가능한 사업들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는 동시에 데이터와 만족도에 기반하여 객관적, 장기적 차원의 공간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관련 교육의 강화를 통해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고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넷째, 생활권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결과 이주 초기 청년들의 만족도가 낮고, 관련 제도 또한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 초기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활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타 시·도로부터 신규 전입한 20대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홍보물, 생활 물품으로 구성된 웰컴박스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생활권 단위에서 새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안내 책자를 배부하거나 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의 또래 친구를 연결해주는 제도 등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이 밀집하여 학생 거주자가 많은 신촌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근 대학과 협력을 통해 신입생 교육 시 생활권에 대한 소개가 병행되도록 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다수의 대학이 신입생 교육자료에 주거 지원의 하나로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여 인근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추가하고, 나아가 ‘대학 지역박람회’를 개최하여 주변 상인이나 원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 생활권 적응 보조프로그램을 통해 전입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주민, 대학 학생회의 정책 효능감을 제고하고 상인들의 홍보 및 참여 기회를 확보하여 사회적 자본 증대가 기대된다.



[그림 5-4] 대학 신입생 교육자료 내 주거 정보(한양대학교)

다섯째, 인식생활권의 형태복잡도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바, 생활권을 구체적으로 인식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생활권이 단순하게 숙식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그 안에서 즐기고, 활동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성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세밀한 생활권 인식을 유도한다. 특색있는 거리, 건물, 점포를 확보하여 인식의 구체성을 개

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예술평공간 조성, 거리예술마켓 지원 등의 계획내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가의 이점을 살려 청년문화거리와 같은 특화거리를 유도함으로써 문화특성을 강화할 수 있다. 특화거리별 문화행사를 발굴하거나 우수음식점, 청년 친화 점포 등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물리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재생법상 상생 협약을 통해 건축물 용도, 보행 공간, 가로경관 등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간을 구상한다.



참고문헌

- 고은정, 2018,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다양성, 사회자본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도시연구」, 19(2), pp.73~86, 서울연구원.
- 권세연·박환용, 2014, “서울시 1인가구의 주거환경 만족 영향요인 연구”, 「주택연구」, 22(1), pp.77~104, 한국주택학회.
- 권정표, 2022, “청년 1인가구 임차인의 주거 만족도 및 주거 이동 의향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건형, 2010, “아파트 거주자가 인식하는 우리 동네와 근린생활권”,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배·유병선, 2013, “근린환경과 노인의 사회적 관계, 우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3(1), pp.105~123, 한국노년학회.
- 김동하, 2016, “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 탐색: 다중 질적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아, 2005, “신도시 근린생활권 변화와 거주자의 생활영역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주, 2020, “1인가구의 연령대별 특성과 주거 만족도”, 「주택도시연구」, 10(1), pp.39~62, SH도시연구원.
- 김세정, 2014,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도시근린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 2010, “도시지역 초등학생의 공간인지 특성연구: 인천 소재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기전문화연구, 36, pp.1~30, 기전문화연구소.
- 김수영·오찬욱·문경주, 2017,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대한 인식이 고령자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3), pp.35~43, 한국주거학회.
- 김용진·안건혁, 2011,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노인의 건강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6), pp.89~99, 한국도시설계학회.
- 김육진·김태연, 2020, “주거환경 만족도가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동네 응집력의 매개효과와 거주기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4), pp.125~158,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김재윤, 2003, “거주자 생활영역 인식조사를 통한 근린생활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안형진, 2020, “근린의 물리적 공간범위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혼합단지 주거환경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도시정책연구」, 11(2), pp.25~39, 도시정책학회.
- 김민민·신현주, 2018, “어메니티가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식지표와 객관지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pp.115~136,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호정, 2007, “순서화 로짓모형: 설문조사에 적용되는 척도의 종류”, 「국토연구」, 310, pp.94~102, 국토연구원.
- 민충근, 2021,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10년,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훈, 2010,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5(6), pp.59~72, 도시계획학회.
- 박주현·이경환, 2020, “CPTED 사업으로 인한 근린의 물리적 환경변화가 빈곤지역 주민들의 범죄 두려움과 동네 만족도, 동네 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1), pp.105~111, 대한건축학회.
- 박효숙·이경환, 2018, “여성들의 동네 만족도와 동네 애착, 이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충청남도 아산시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4(1), pp.71~81, 대한건축학회.
- 박효숙·이경환, 2019, “근린환경이 노인들의 보행 시간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녹번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54(2) pp.109~121, 대한국토계획학회.
- 손경민·진장익, 2020, “지역특성이 노인층·청년층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조방정식 경로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국토계획」, 55(4), pp.19~3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서경택, 2022, “청년주거 정책 시행에 따른 청년가구의 주거 만족도 변화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대문구, 2014,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
- 서울시, 2014, “2030 서울플랜”
- 서울시, 2014,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서울시, 2015,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서울시, 2016, “신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서울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 지역생활권계획-서대문구”.
- 서울시, 2022, “서울시,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 서원석, 2013, “순서화로짓모형을 이용한 재개발사업 이전 주택유형별 재정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요소 분석”, 「서울도시연구」, 14(1), pp.39~55, 서울연구원.

- 서원석·박기덕, 2020, “경제적 사회거리가 공공주택 거주민의 근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GRI연구논총」, 22(2), pp.53~76, 경기연구원.
- 서일교·남상준, 2019,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동네’의 공간적 범위와 모습”,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3), pp.17~34,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 서주환·조영배·이준근, 2002, “형태지수를 이용한 농촌경관의 선호성 분석에 관한 연구: 농촌 문화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6(2), pp.7~14, 한국산림휴양학회.
- 서한림, 박소현 (2007), 주거지 내의 물리적 보행환경 특성에 관한 기초연구-서울 북촌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8), pp.191~199, 대한건축학회.
- 성은영·강현미·허재석, 2021,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성현곤, 2011, “주거지 근린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중교통 중심 개발 (TOD)의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6(3), pp.235-252, 대한국토계획학회.
- 신명철·이재수, 2019,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만족도 영향 요인 비교 연구”, 「감정평가학논집」, 18(3), pp.167~195, 한국감정평가학회.
- 신서경·김동근·송지은·김진엽, 2021, “도시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계획 도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안균섭·진은애, 2022,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선택이 주거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별, 생애주기별, 소득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33(3), pp.15~28, 한국주거학회.
- 안용진, 2019, “물리적 근린환경 특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친 영향”, 「GRI연구논총」, 21(1), pp.241-260, 경기연구원.
- 양재섭·한지혜·반영권, 2022,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 운영실태 진단과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 원재용·이재수, 2018,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근린환경 특성과 주거 만족도 비교분석 연구”, 「부동산정책연구」, 19(2), pp.59~74,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윤소영, 2021,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에 관한 연구: 생활SOC 접근성과 근린생활환경 만족도 관계 중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은영, 2020, “근린환경 만족도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주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영·정문기, 2019, “1인가구의 이웃관계 영향요인 연구: 경기 북부-남부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4), pp.315~348, 지방행정연구원.
- 이경환·김태환·이우민·김은정, 2014,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근린환경과 보행통행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도시연구」, 15(3), pp.95~109, 서울연구원.
- 이경환·안건혁, 2008. “지역주민의 보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 특성에 관한 실증 분석 - 서울시 12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6): 293-302, 대한건축학회.

- 이경환·안건혁, 2008a. “근린 환경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40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3(3): 249-26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상우·황순진, 2007, “공간성, 호소유형 및 형태복잡도 지수를 이용한 토지 이용과 호소수질의 관계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4(6), pp.1~9, 한국조경학회.
- 이성준, 2014,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제·사회·환경적 개선효과(와)로 수정하는 게 맞는지 확인 필요 함) 거주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김모윤, 2019, “청년층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거수준 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30(4), pp.55~64, 한국주거학회.
- 이현정·박상우, 2022, “지역별 청년층 월세 가구의 주거환경 및 주거비 부담 결정요인 분석”, 「주택도시 연구」, 12(2), pp.21~49, SH공사 도시연구원.
- 이형숙, 2011, “노인들의 도보권 근린시설 이용현황 및 인지된 접근성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4), pp.63~74, 한국도시설계학회.
- 이호연, 2018, “대학가 인근 청년 밀집지역의 근린주거환경 특성에 따른 만족도: 서울시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준홍, 2021,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와 주거 이동 의향 실증분석: 도시와 농촌 차이”, 「주거 환경」, 19(1), pp.13~24, 한국주거환경학회.
- 임해린, 2021, “주거복지정책이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혜정, 2017,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pp.510~5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한두, 2009, “주민의 생활범위 인식과 주거환경의 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6), pp.3~14.
- 전준형·박진아, 2020, “보행환경이 근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17 자료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5(3), pp.29~42.
- 지갑성, 2020, “주거환경 요인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2), pp.239~264, 한국공공관리학회.
- 지승용·최재용·이상학·이상훈, 2016, “경관지수 패턴 분석을 이용한 산지개발사업의 산림 파편화 영향 범위 예측”,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9(2), pp.109~119,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 최창호·유연우, 2017,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pp.103~111,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홍영화, 2013, “근린에서의 상점 이용과 환경인식이 주민의 영역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황희돈, 김찬호, 2008, 신도시 근린생활권 계획 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3(4), pp.49~6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허윤선·양병이·임승빈, 2012, “어린이의 우리 동네 공간인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아동설문과 인지 eh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7(1), pp.243~25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강홍빈·김광중·김기호·김도년·양승우·이석정·정재용(역), 2009,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서울:대가(Carmona, M. Heath, T., Oc, T., Tiesdell. S., 2003, Public Places–Urban Spaces, 1st edition, Architectural Press).

Claudia J. C., Jill K., Tsui C, and Marilyn S., 2001, “Mapping Residents’ Perceptions of Neighborhood Boundaries: A Methodological Not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2), pp.371~383.

Zhao, J. Z., Lou, S., Fonseca, C., Feiock, R., & Shen, R., 2021, “Explaining transit expenses in US urbanised areas: Urban scale, spatial form and fiscal capacity”. Urban Studies, 58(2), pp.280–296.

문은혜, 2021.05.04., “부동산 큰 손 떠오른 30대…직주근접에 ‘올인’(보도자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2318/?sc=nate&watchtype=pc>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서울 생활권계획 홈페이지(<https://planning.seoul.go.kr/plan/main.do>)



설문 항목 및 측정 방법

[표 부록-1] 설문 항목 및 측정 방법

		항목	측정 방법
일반적 특성	통계분류사항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태어난 연도(년)
		직업	① 대학생 ② 대학원생 ③ 자영업 ④ 판매/영업 서비스직 ⑤ 기능/직업직(생산직 종사자 등) ⑥ 사무/기술직 ⑦ 프리랜서 ⑧ 기타 ⑨ 무직
		학력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재학 ⑤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⑥ 대학원 졸업
		월평균 소득	① 소득 없음 ② 100만 원 미만 ③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④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⑤ 300만 원 이상
		자동차 보유	① 예 ② 아니오
	거주 특성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구 ()동
		주택 형태	① 아파트 ② 연립/다세대주택 ③ 단독주택 ④ 기숙사 ⑤ 오피스텔 ⑥ 기타
		점유 형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장기 임대 ⑤ 기타
		거주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가구원 수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수(명)
		독립 형태	① 동거 ② 독립 ③ 비동거

		항목	측정 방법
생활권 범위	생활권 범위 결정 기준	1순위	① 통근·통학 지역 ② 쇼핑하는 지역 ③ 여가를 보내는 지역 ④ 배달 배송 거리 ⑤ 중고거래 가능 범위 ⑥ 집에서부터의 거리-도보 ⑦ 마을버스 ⑧ 자전거 ⑨ 시내버스 ⑩ 지하철 ⑪ 도로 또는 울타리 경계 ⑫ 편의시설의 분포 ⑬ 선호시설의 분포 ⑭ 혐오시설의 분포
		2순위	⑮ 친한 사람이 사는 지역 ⑯ 아는 사람이 사는 지역 ⑰ 단골 가게가 있는 지역 ⑱ 가족/친구와 자주 시간을 보내는 지역 ⑲ 지역 커뮤니티 활동 지역 ⑳ 행정단위(통반) ㉑ 행정단위(동) ㉒ 행정단위(구) ㉓ 기타
		3순위	
	생활권 범위	집에서부터 걸어서 가는 데 걸리는 시간	()분
		집에서부터 버스 정거장 수	()개
		집에서부터 지하철 정거장 수	()개
	인식지도	둘레	지도에 작성된 생활권의 둘레(m)
		면적	지도에 작성된 생활권의 면적(m ²)
		형태복잡도	둘레/면적
		중첩률	신촌 생활권과의 중첩률
생활권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5점(매우 불만족) ~ +5점(매우 만족) 11점 리커트 척도
	생활권 내 이용시설 만족도	마트	① 매우 불만족 ② 조금 불만족 ③ 보통 ④ 조금 만족 ⑤ 매우 만족
		편의점	
		음식점 및 호프	
		카페 및 베이커리	
		스포츠시설(헬스장, 요가/필라테스 등)	
		의료시설(병원, 의원, 보건소, 약국 등)	
		미용실 및 뷰티샵	
		백화점 및 쇼핑시설(옷/신발/소품샵 등)	
		문화시설(도서관,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등)	
		자연환경(공원, 녹지, 오픈스페이스)	
주차시설			

항목		측정 방법
생활권 환경 만족도	공공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공공기관(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	
	교육시설(학교, 학원가 등)	
	대중교통(버스정거장, 지하철역)	
	커뮤니티시설	
	도보 이용성	① 매우 불만족 ② 조금 불만족 ③ 보통 ④ 조금 만족 ⑤ 매우 만족
	대중교통 접근성	
	공공시설 개수	
	공공시설 다양성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공공시설 접근성	
	편의시설 개수	
	편의시설 다양성	
	편의시설 이용가격	
	편의시설 유명도	
	편의시설 접근성	
	가족과 함께 이용 가능	
	이웃과 관계 형성에 도움	
	도로 및 보도 정비상태	
	간판 정리	
전선 정리		
가로수 및 조경		
건물 밀집도		
건물 노후도		
쓰레기 처리		
대기질 및 미세먼지		
소음		
청결도		
자연재해 안전성		
범죄위험 안전성		
교통사고 안전성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성		
감염병 안전성		

항목		측정 방법	
생활권 환경 중요도	1순위	① 도보 이용성 ② 대중교통 접근성 ③ 공공시설 개수 ④ 공공시설 다양성 ⑤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⑥ 공공시설 접근성 ⑦ 편의시설 개수 ⑧ 편의시설 다양성 ⑨ 편의시설 이용가격 ⑩ 편의시설 유명도 ⑪ 편의시설 접근성 ⑫ 가족과 함께 이용 ⑬ 이웃과 관계 형성에 도움 ⑭ 도로 및 보도 정비상태 ⑮ 간판 정리 ⑯ 전선 정리 ⑰ 가로수 및 조경 ⑱ 건물 밀집도 ⑲ 건물 노후도 ⑳ 쓰레기 처리 ㉑ 대기질 및 미세먼지 ㉒ 소음 ㉓ 청결도 ㉔ 자연재해 안전성 ㉕ 범죄위험 안전성 ㉖ 교통사고 안전성 ㉗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성 ㉘ 감염병 안전성	
	2순위		
	3순위		
생활권 환경 필요 요소		주관식 응답	
정책인지 및 중요도	생활권계획 인지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신촌 생활권 지역발전구상 계획 중요도	이대·신촌역 청년창업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① 매우 중요하지 않음 ② 조금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조금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연희가로 지역문화 자원 특성 강화	
		대학과 연계한 문화산업 기반조성	
		저층 주거지 기반시설 정비·개량 및 공급	
		정비구역 및 해제지역 계획적 관리	
		청년인구를 위한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홍보 및 지원	
공공시설 활용 주민 문화여가 참여기회 확대			

항목		측정 방법	
신촌 생활권 공간관리지침 계획 중요도	대학자원 및 상권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① 매우 중요하지 않음 ② 조금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조금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공원 주변 개선으로 접근성 강화, 문화활 동 유지		
	자연환경과 연계한 주거지 관리		
	공동근린공원 및 안산 보행 접근성 확보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 보전 및 친환경 건축 유도		
	연세대-이화여대 인근 주거환경 개선		
	주변 산, 저층 주거지와 조화로운 경관 조성 유도		
	홍제천 주변 경관 관리 및 접근성 향상 유도		
	특화거리 통일감 확보 및 보행 활성화 유도		
	주차장 우선 공급		
	도서관 우선 공급		
공공체육시설 우선 공급			
생활권계획 관련 추가 희망정책		주관식 응답	
정책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① 매우 낮음 ② 조금 낮음 ③ 보통 ④ 조금 높음 ⑤ 매우 높음	
정책 및 행정서비스 신뢰도		① 매우 낮음 ② 조금 낮음 ③ 보통 ④ 조금 높음 ⑤ 매우 높음	
관계 및 커뮤니티	이웃과의 관계	이웃의 도움을 종종 받는 편이다	① 매우 아님 ② 조금 아님 ③ 보통 ④ 조금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이웃을 종종 도와주는 편이다	
		이웃은 신뢰할만한 사람들이다	
	생활권의 이웃 교류 용이성		① 매우 좋지 않음 ② 조금 좋지 않음 ③ 보통 ④ 조금 좋음 ⑤ 매우 좋음
생활권 소속감		-5점(전혀 소속되지 않음) ~ +5점(매우 소속됨) 11점 리커트 척도	

SQ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재학 ⑤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⑥ 대학원 졸업

SQ5. 귀하의 지난 한 해(2021.1.1.~2021.12.31.) **연간 소득, 지출,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항목		금액
1	월 평균 소득(세금 납부 전 금액)	()원
2	월 평균 지출(한 달 동안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	()원
3	월 평균 저축	()원

SQ6. 귀하께서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 예 [SQ6-1로 이동] ② 아니오 [A. 주거로 이동]

SQ6-1.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언제 주로 이용**하십니까?

- ① 출퇴근/등하교 시에만 사용 ② 업무/학업상 계속 사용
 ③ 주말 여가 활동 시에만 사용 ④ 기타()

A. 주거

A1.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구 ()동

A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다세대주택 ③ 단독주택
 ④ 기숙사 ⑤ 오피스텔 ⑥ 기타()

A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의 점유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장기 임대 ⑤ 기타

A4. 귀하께서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2년 미만 ③ 2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

A5. 귀하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명

B2. 귀하께서 생각하는 **동행 수단별 물리적 생활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항목		응답
1	보행	집에서부터 걸어서 가는 데 걸리는 시간 ()m
2	대중교통	집에서부터 버스 정거장 개수 ()개
3		집에서부터 지하철 정거장 개수 ()개

※ B3 문항은 지도를 함께 보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B3. 귀하께서 생각하는 **생활권의 범위**를 다음 순서에 따라 **지도**에 그려주세요.

- (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곳**을 ○로 표시해주세요.
- (2) **생활권의 범위**를 선을 사용하여 영역으로 표시해주세요.
- (3) 귀하께서 생각하는 **생활권의 중심**을 ★표로 표시해주세요.



B3-1. 해당 범위를 **생활권**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 이동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어서, 인사하는 단골 가게가 많아서

C. 생활권 환경 만족도

C1. 귀하께서 현 거주지로 이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선택에 √로 표시해주시시오.

이주 이유		선택
1	직장, 학교, 사업 등의 이유로	
2	교통이 편리해서	
3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해서	
4	집값이 싸서	
5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6	문화/예술/여가시설 등이 가까이 있어서	
7	공원 및 자연환경이 쾌적해서	
8	의료 및 복지시설이 잘 갖춰있어서	
9	가족, 친구, 지인이 가까이 살아서	
10	기타()	
11	이주한 적 없음	

C2. 귀하의 생활권 환경의 전반적 만족도 는 어떠합니까?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5)	(-4)	(-3)	(-2)	(-1)	(0)	(+1)	(+2)	(+3)	(+4)	(+5)

C3.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생활권 내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항목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1	마트	①	②	③	④	⑤
2	편의점	①	②	③	④	⑤
3	음식점 및 호프	①	②	③	④	⑤
4	카페 및 베이커리	①	②	③	④	⑤
5	스포츠시설(헬스장, 요가/필라테스 등)	①	②	③	④	⑤
6	의료시설(병원, 의원, 보건소, 약국 등)	①	②	③	④	⑤
7	미용실 및 뷰티샵	①	②	③	④	⑤
8	백화점 및 쇼핑시설(옷/신발/소품샵 등)	①	②	③	④	⑤
9	문화시설(도서관,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등)	①	②	③	④	⑤
10	자연환경(공원, 녹지, 오픈스페이스)	①	②	③	④	⑤
11	주차시설	①	②	③	④	⑤
12	공공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①	②	③	④	⑤
13	공공기관(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	①	②	③	④	⑤
14	교육시설(학교, 학원가 등)	①	②	③	④	⑤
15	대중교통(버스정거장, 지하철역)	①	②	③	④	⑤
16	커뮤니티 시설	①	②	③	④	⑤

C4.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생활권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항목*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번호	구분	항목	①	②	③	④	⑤
1	이동	도보 이용성	①	②	③	④	⑤
2		대중교통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3	공공시설 (공원, 주차장, 도서관,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개수	①	②	③	④	⑤
4		공공시설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5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①	②	③	④	⑤
6		공공시설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7	편의시설 (식당, 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	편의시설 개수	①	②	③	④	⑤
8		편의시설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9		편의시설 이용가격	①	②	③	④	⑤
10		편의시설 유명도	①	②	③	④	⑤
11	생활권 내 사회적 관계	편의시설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12		가족과 함께 이용 가능	①	②	③	④	⑤
13		이웃과 관계 형성에 도움	①	②	③	④	⑤
14		도로 및 보도 정비상태	①	②	③	④	⑤
15	물리적 환경	간판 정리	①	②	③	④	⑤
16		전선 정리	①	②	③	④	⑤
17		가로수 및 조경	①	②	③	④	⑤
18		건물 밀집도	①	②	③	④	⑤
19	생활환경	건물 노후도	①	②	③	④	⑤
20		쓰레기 처리	①	②	③	④	⑤
21		대기질 및 미세먼지	①	②	③	④	⑤
22		소음	①	②	③	④	⑤
23	생활권 안전성	청결도	①	②	③	④	⑤
24		자연재해 안전성	①	②	③	④	⑤
25		범죄위험 안전성	①	②	③	④	⑤
26		교통사고 안전성	①	②	③	④	⑤
27	생활권 안전성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성	①	②	③	④	⑤
28		감염병 안전성	①	②	③	④	⑤

C4-1. C3의 생활권 구성 항목*(1~28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3개 이상을 선택하여 순위**에 따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순위	번호	순위	번호
(예시) 1순위	2(대중교통 접근성)	2순위	23(청결도)
1순위		6순위	
2순위		7순위	
3순위		8순위	
4순위		9순위	
5순위		10순위	

D2.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신촌 생활권의 생활권계획에 추가하고 싶은 시설이나 서비스, 정책을 1개 이상 적어주세요.

(예시) 원룸촌 가로등 설치, 쓰레기 수거 빈도 늘리기, 배드민턴장 설치, 청년일자리지원센터, 마음건강지원 등

D3. 귀하께서는 느끼시는 생활권 내 정책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수준은 어떠합니까?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정책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정책 및 행정서비스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E. 관계 및 커뮤니티 활동

E1. 귀하께서는 생활권 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항목		매우 아님	별로 아님	보통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이웃의 도움을 종종 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웃을 종종 도와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웃은 신뢰할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F2.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생활권은 이웃과 교류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우 좋지 않음	별로 좋지 않음	보통	조금 좋음	매우 좋음
①	②	③	④	⑤

(예시)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 거주지 주변이 주거지가 아니어서 이웃이 없음, 커뮤니티 시설이 많음, 도보 연결성이 좋음 등

F3. 귀하께서 느끼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어떻습니까?

전혀 소속되지 않음 ←											→ 매우 소속됨										
(-5)	(-4)	(-3)	(-2)	(-1)	(0)	(+1)	(+2)	(+3)	(+4)	(+5)											

작은연구 좋은서울 22-02

신촌생활권 청년 거주자의
생활권 인식에 관한 연구

발행인 박형수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